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교

사 학 과

하 명 실

2017년 8월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지도 교수 양 정 필

하 명 실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하명실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6월

April 3 Experiences and Healing Process in Hagwi Village, Jeju Island

Ha-Myung Sil

(Supervised by professor Yang-Jeong 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7. 6 .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pril 3 Experiences and Healing Process in Hagwi Village, Jeju Island

This thesis reviews the Jeju April 3 Incident using forensic methods of historical research through the experiences of survivors of the April 3 Incident. By reviewing the experiences of April 3 Incident survivors at historic villages as sites of shared memory and April 3 trauma, this work attempts to uncover the village healing processes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unities of peaceful coexistence.

The target village for the thesis is Hagwi and it was chosen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village had more than 302 victims even though it is not a mid-mountain village. According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the village had the most victims among 19 villages in Aewol-eup as of May 30, 2001. Second, a socialist anti-Japanese movement was predominant in this villag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village led 'the People's Council' of the former Aewol-myeon right after liberation. Third, the villagers established a memorial space called 'Yeongmowon' before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was adopted; they pioneered finding ways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and they sought and practiced ways to heal April 3 trauma by themselves.

Hagwi village had a tradition of socialistic anti-Japanes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y tried to establish a righteous living foundation through the People's Council led by socialistic anti-Japanese activists after liberation by establishing an autonomous united govern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n employed pro-Japanese groups; failed in food policy; had corrupt officials; pursued barbaric anti-communist policies led by the anti-communist North 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nd pushed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in only South Korea. As the villagers' autonomous activities to establish a peaceful and coexisting living foundation as well as a united government were blocked, they chose to resist. Due to the resistance, the village was branded 'a red village'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such as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it became a site of massacre. Most of the victims were sacrificed within 5 months from October, 1948 through March 1, 1949 when operations to burn villages were enforced after the hostil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There were many cases of massacre committed by the punitive expedition: massacre at Misu-dong village; massacre at Wonbaengdui, Gamundong; the firewood incident at Oedo police substation; the 'Close your eyes' incident at Hagwi public elementary school; massacre at Jawundang; massacre at the western farm field from Oedo police substation; and massacre at Soseung stream.

Going through the April 3 Incident, Hagwi village became branded as a "commie" village. The villagers changed its name to Donggwi and Gwiil in order to escape the nightmare of being a commie village, but they had to endure years of fear, rage, and resignation. The villagers, who had to endure suppression under the anticommunist structure in the destroyed village community after the April 3 Incident, started to heal their April 3 Incident wounds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They began to talk about April 3 in the village with their own words. They took steps to find the identity of Hagwi village and restored the name of Hagwi again in 1993. Then 10 years later in 2003, they established a memorial space through their own effort before the 'Jeju April 3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was adopted. They led the way to peace and coexistence based on human rights by cherishing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April 3 Incident along with those sacrificed for the country. The Yeongmowon in Hagwi village became a place to remember that concern for human rights is essential for building peace. This place also serves to restore the village community and heal the April 3 trauma of the village.

The April 3 Incident at Hagwi village is reviewed based on testimonies and villager resistance to the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ril 3 Incident in Hagwi village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a history of the massacre and suffering of innocents and the struggle to bring government power to account after over 11% of villagers were victimized with 90% of those sacrificed by the punitive force.

Second, the April 3 Incident at Hagwi village is a history of the struggle by villagers to survive and live as humans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pro-American anti-communist powers.

Third, establishing an autonomous united country was the desire and task for the whole nation at the time of liberation as it was being divided by foreign powers.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structed pro-American, anti-communist powers and fin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only in South Korea. Therefore, Hagwi villagers resisted the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rough: nonparticipation in the reelection of transitional Assembly lawmakers; participation in the commemoration of the March 1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 general strike of

private and public bodies; the rejection of the May 10 general election, and others. These examples demonstrate that the “April 3” experience of Hagwi village was a history of strife as a movement to found a united nation as well as a national liberation campaign.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3
II. 해방 전의 하귀마을과 항일운동	12
III. 하귀마을의 4·3 경험	19
1.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활동과 하귀중학원	19
2. 5·10 총선거 거부와 마을 주민 희생	25
3. 초도화 작전 시기 마을 주민 대량 학살	29
4. 예비검속과 마을 주민 학살	40
IV. 하귀마을의 4·3 치유 과정	47
1. 4·3 이후 마을 공동체의 해체	47
2. 마을주민들의 4·3 증언과 치유의 시작	49
3. 英慕園의 조성과 마을공동체의 복원	52
V. 결 론	60
부표: 하귀마을의 4·3 희생자 명부	67
참고문헌	74

<표 차례>

<표 1> 5·10 총선거 이후 하귀마을 학살사건 개요 27

<표 2> 초토화 작전시기부터 1949년 말까지 하귀마을 학살 사건의 개요 30

<표 3> 하귀마을 4·3 희생자 통계표 44

<그림 차례>

그림 1) 하귀마을의 4·3 유적지 2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해방 직후 우리는 청산해야 할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를 남긴 채 분단의 벽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제주도민들은 그 역사 공간에서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저항하였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시위 발포 사건에 저항하여 제주도민들이 민관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시작되었다. 제주는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 억압과 저항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지옥의 공간이 되었다.

제주 4·3은 미군정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되던 냉전 상황과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저항의 역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 광복 직후 희망에 부풀었던 제주는 귀향 인구에 따른 일자리 부족, 미군정의 대일무역 불법화로 인한 생활필수품 부족, 거기에 흉년과 전염병 강타로 불안해져 갔다. 거기다가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미군정 관리들의 부정행위, 식량 정책 실패 등은 제주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 속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7년 3·1절 시위 발포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쏜 총알에 6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을 정당방위라 주장하며 제주민을 무시하는 미군정의 태도에 제주도민은 3·10 민관총파업으로 대응하였다. 제주 4·3의 불씨는 이때 만들어졌다. 육지 응원 경찰, 서북청년회 등을 동원하면서 제주도민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 정책은 제주도민과 미군정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제주도내 상황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한반도 전체 상황과 겹치면서 제주 4·3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1948년 제주도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거부했던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48년 여름이 지나면서 남과 북에 각각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그 후 강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빨갱이 논리 속에 학살되었다. 학살의 경험은 제주민의 피해 의식을 가중시켜 레드콤플렉스를 내면화시켰다. 제주도민들은 생존을 위해 민보단과 특공대가 되어 토벌에 앞장서야 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또 다시 제주도민들은 예비검속으로 이어지는 학살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제주도민들은 해병대와 학도병으로 지원하였다. 반공전선의 군인이 되어 빨갱이의 낙인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1948년 제주 4·3 무장 봉기자는 35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947년 3월 1일 시위 발포사건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기까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이 토벌대(군인, 경찰, 서북청년회 등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¹⁾

분단 체제를 정권 유지의 토대로 삼았던 반공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갇힌 채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삶을 강요받았다. 제주 4·3은 금기 사항이었고 유족들은 연좌제의 피해에 시달렸다. 긴 침묵과 강요된 망각의 공포 속에서 제주민들의 정체성은 파편화되고 제주 공동체 사회는 무너졌다. 그동안 제주 4·3은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어 각인되고 항쟁의 기억은 파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0년 1월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침묵을 강요받았던 제주 4·3의 진상 규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노무현 정권시기인 2003년에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제주 4·3 역사 공간에서 펼쳐진 인권유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초토화 작전으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던 이승만 정권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은 분단 체제의 현실에 간혀 정명을 달지 못한 채 '공산 폭동'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곧 제주사회가 여전히 4·3으로 인한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 사회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주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3, 373쪽.

4·3의 정명 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제주 4·3은 성별, 연령, 정치적 입장, 그리고 중산간이나 해안이나 하는 마을의 위치 등에 따라 피해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마을마다의 입장에 따라 제주 4·3의 기억은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 4·3 진상규명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주도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큰 틀에서 제주 4·3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제주 사회가 공감하는 '제주4·3 정명규정'에 방점을 찍고 제주 4·3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구체적인 마을의 4·3 경험을 소재로 삼아 제주 4·3을 미시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특정한 마을의 4·3 역사 연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되는 마을에 각인된 제주 4·3의 기억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서술된 4·3의 기억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긋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의 진실여부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제주 4·3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 4·3을 공산 폭동으로 각인시키려는 세력들과의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 4·3의 정명을 규정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4·3 역사 연구는 마을주민들이 겪은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연구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마을의 4·3 정체성을 찾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터전을 마련하여 제주 4·3 트라우마의 미시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²⁾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는 분단체제 속에 갇혀 자유로운 학

2) 야만의 역사, 과거 청산의 이상과 목적은 권력에 의해 삭제되고 억압된 기억을 부활시킴으로서 정의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비극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도덕과 건강한 의식이 타락하면서 학살이 일어났고, 학살 사건은 도덕 감정과 의식을 더 심하게 타락시켰다. 애도 작업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의식의 교정은 공동체의 복원이다(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438,439쪽).

문적인 접근이 힘들었다. 반공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제주 4·3 연구물로는 1970년대의 김점곤의 글이 있다. 김점곤은 제주 4·3을 제주도 남로당원들이 중앙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파악하여 미군정의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고 이해하였다. 1947년 3·1사건 이후 강화된 군경의 탄압으로 도민과 남로당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은 남로당의 조직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³⁾

김점곤의 글 외에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반공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주 4·3 연구 결과물로는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가 있다. 토벌전을 펴던 당시 제주지역의 군 작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84년 출판된 강용삼의 『대하실록 제주백년』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 4·3을 다룬 것으로 토벌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1988년에 나온 조남수의 『4·3의 진상』은 우익적 관점에서 체험과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글이다. 이외에도 박서동의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1990), 고문승의 『박헌영과 4·3사건』(1989), 『제주사람들의 설움』(1991)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반공주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는 4·3결과물들은 사실 왜곡이 많은 편이다.⁴⁾

1980년대 이전, 제주 4·3을 민중항쟁사로 기술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로는 김봉현·김민주가 공동으로 쓴 글이 있다. 이 연구물은 제주 4·3 항쟁의 주체를 남로당과 제주도민으로 파악하면서 제주 4·3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나치게 좌익세력의 역량을 기술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저자인 김봉현과 김민주가 항쟁에 직접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도피했던 인물들이고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4·3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1차적 자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⁵⁾

국내외 학술적 성격의 제주 4·3 첫 논문은 존 메릴(John Merrill)의 하버드대학 석사 논문이다. 존 메릴은 미국 국립문호서 기록 관리청에서 1975년 제정된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 해제된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및 군정청 문서를 논문에

3)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4) 반공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물에 대한 설명은 김준민의 글을 인용하였음(「4·3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소,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364쪽).

5) 김봉현·김민주 공편, 『제주도 인민들의 4·3투쟁사』, 대판: 문우사, 1963 (아라리 연구원,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활용하였다. 존 메릴은 제주 4·3이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민중봉기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두 개의 한국정부간의 수립과정을 겪으면서 4·3은 제주도 남로당의 지도 속에 조직적인 빨치산 운동으로 성격이 변해갔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실정이 제주 4·3봉기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파악하면서도 제주 4·3 시기 학살에 대한 미군정의 직접적인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⁶⁾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주 4·3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제주 4·3을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양한권, 박명림, 고창훈 등의 논문이 있다.

양한권은 제주도 저항의 역사적 전통과 해방 직후 부정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제주 4·3의 배경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주 상황을 친미 반공세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다룬 미군정의 실정이 4·3 봉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였다.⁷⁾

박명림은 제주 4·3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생존을 위한 민중해방운동이며 자주적인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민족해방운동의 항쟁사로 이해하면서 제주 4·3은 전후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에 저항하는 제3세계 민중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⁸⁾

고창훈은 제주 4·3 항쟁에 있어서 남로당은 민중의 요구를 수렴한 세력일 뿐 제주민중이 항쟁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 4·3 항쟁에서 남로당을 항쟁의 주체로 설정하는 '폭동론'이나 좌우 세력으로 설정하는 '반란론'의 인식이 주체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남로당을 핵심으로 한 '인민무장투쟁론' 또한 민중을 수동적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민중이 항쟁의 주체로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1945년 1946년 자치정부의 구성과 자주교육의 운용, 그리고 1947년 3·1 항쟁에서의 주체적인 경험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⁹⁾

박명림과 고창훈의 논문은 제주 4·3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면서 남로당이 일

6) 존 메릴의 「The Chejudo Rebellion」은 1975년 하버드 석사학위 논문으로 노민영 역음, 『잠들지 않은 남도』, 온누리, 1988에 수록되어 있다.

7)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8) 박명림, 「제주도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9)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9.

정한 문제 제기와 투쟁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민중의 삶 속에서 생존과 통일운동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민중이 주체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제주 4·3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미군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고 제주 4·3연구소의 증언 채록의 결과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는 제주 4·3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 4·3 진상규명운동에 기여했다.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민일보의 10여 년에 걸친 연재물을 묶은 이 책은 총 5권으로 그 동안의 학술적 성과와 국내외 자료, 6000여 명에 이르는 증언을 종합해 제주 4·3의 전체적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¹⁰⁾ 이 책은 제주 4·3 진상 규명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대량학살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4·3 연구는 여성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주요 연구자로 김성례, 이정주, 양정심, 강성현, 문순보 등을 들 수 있다.

김성례는 4·3의 참상이 근대적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산물이었으며, 지난 50년간 그 폭력의 진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어왔다고 전제하면서 4·3의 역사적 진실은 국가 폭력의 진실성을 해명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또한 4·3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때로는 협상하는 역사적 재현의 담론 정치를 국가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의 역학적 구조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4·3의 폭력을 재현하는 담론은 폭력의 정당성을 해석하는 주체, 즉 폭력의 행위자의 입장과 희생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고 보고 4·3의 폭력을 재현하는 담론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Ren Girard의 근원적 폭력'의 이론을 적용하여, 제주 4·3의 폭력성은 4·3을 진압하고 평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남한이라는 근대적 국가의 근본적 폭력과 그 정당성을 구축하는 희생적 질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적 질서 안에서 반공주의와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가 삶의 기준이 되면서 희생자들의 언어로 제주 4·3을 말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4·3 담론 지배 속에서 4·3 희생자의 무고한 죽음을 고발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증언하는 제주

1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2.3.4.5, 전예원, 1994-1998.

무속의 이야기는 반 폭력적 저항담론으로 결국에는 반공정치의 폭력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해원하고 치유하는 구원의 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갈라진 증언의 목소리와 조각난 기억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상되는 4·3의 담론 형성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양정심은 4·3 항쟁의 주도세력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연구 주제로 삼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3·10총파업 등 대중 투쟁 속에서 제주도민과 결합해 나가는 과정과 4·3봉기라는 무장투쟁노선을 채택한 배경과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¹²⁾

이정주는 여성들의 구술 생애사에서 재생된 여성들의 기억을 가지고 한 마을의 제주 4·3을 재구성하였다. 여기서 제주사회와 4·3의 맥락 속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4·3 경험과 기억을 분석하였다.¹³⁾

강성현은 사회사적 관점에서 제주 4·3을 억압과 단선, 단정에 대한 자발적인 저항과정에서 확대된 민간인 대량학살론으로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데, '4·3'을 '전쟁과 학살 지속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¹⁴⁾

문순보는 미군정의 「G-2(정보참모부)보고서」¹⁵⁾ 등 미군정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4·3을 제주민중항쟁으로 칭하고 발발 원인과 양민 피해의 원인, 그리고 항쟁의 성격을 미군정의 정책과 관련하여 살피고 있다. 여기서 제주민중항쟁은 미군정의 압정에 생존권을 위협 당하던 제주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항쟁으로 차후에 이를 남로당이 주도하면서 정치 투쟁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양민피해의 책임이 미군정의 의도된 진압정책에 기인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¹⁶⁾

제주 4·3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양

11)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238-267쪽.

12)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4.

13) 이정주, 「제주'호미' 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14)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15) 미군 제6사단, 주한미육군사령부, 주한미군사고문단 등의 정보 일지를 지칭한다. 「G-2 Periodic」와 「G-2 Weekly Summary」 등이 있다.

16)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미군정의 대 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민 수난사로 담론화 되어갔다. 이러한 수난사로서의 제주 4·3 담론이 형성되면서 희미해져가는 4·3 항쟁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양정심의 「제주4·3 항쟁 연구」라는 박사 학위 논문이 제출되었다.

양정심은 4·3 역사 공간에서의 제주 4·3항쟁의 내용과 항쟁 이후의 기억투쟁으로 대변되는 4·3 진상규명운동을 분석하였다. 항쟁의 주체 세력인 남로당과 제주도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요인을 인민위원회 활동과 미군정·우익청년단의 공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그 후 심화된 미군정과 우익 세력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분노가 5·10 총선거 반대 운동과 맞물리면서 4·3무장봉기는 제주도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항쟁지도부인 남로당과 제주도민의 연대가 4·3항쟁이 1년 여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항쟁지도부의 무장봉기 결정과 항쟁 과정에서의 무책임성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항쟁지도부와 달리 5·10 단선저지투쟁 속에서 보여주었던 하급당원들과 제주도민의 헌신성은 구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초토화 시기의 학살을 경험하면서 항쟁의 기억보다는 레드콤플렉스의 피해의식이 제주도민들에게 내면화되어갔다고 보았다. 현재 4·3 특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3 진상규명운동은 하나의 양민 학살로 정의하려고 함으로써, 민중들이 역사 속에서 항쟁의 주체로 존재하였던 과정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운동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 즉 좌익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반역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면을 환기시켰다.¹⁷⁾

국가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4·3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이후 4·3에 대한 관심과 자료 수집이 확장되면서 논문 주제가 더욱 다양해졌다. 4·3의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항쟁의 진압세력인 미군정의 정책과 경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¹⁸⁾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연구로는 '제주 4·3과 그리스 내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허호준의 논문과 '

17)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18) 허호준, 「제주4·3의 전개 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양봉철,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연구-제주4·3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현석이, 「도제실시를 통해서 본 '제주 4·3'의 정치·사회적 배경」,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제주 4·3의 정치적 원인'으로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파악한 김평선의 논문이 있다.

허호준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일어났던 그리스 내전과 제주 4·3에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그 역할은 어떠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였다. 제주4·3을 냉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적인 사건으로서, 미국의 반공 패권 정책으로 야기되었다고 인식하였다.¹⁹⁾

김평선은 4·3 무장 봉기의 주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미군정의 과도입법의원 선거 정책을 들고 있다. 미소공동위원회 협상 결렬과 무기한 휴회에 따른 미 국무성 관료들의 반성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946년 10월 말, 과도입법위원회 선거가 추진되었는데, 미군정이 세밀한 계획 하에 좌파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파가 승리하는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강행하여, 결국 1946년 10월 과도입법의원선거에서 우파 세력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도입법의원 선거로 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미군정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배제 정책이 제주 4·3 무장봉기의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²⁰⁾

지금까지 제주 4·3 진상규명을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주도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거시적으로 제주 4·3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마을 마을마다의 처절한 제주 4·3의 기억이 박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제주 4·3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4·3은 말한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서 만나는 제주 4·3은 제주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제주 4·3을 서술하고 있어서 마을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했던 제주 4·3의 고통과 처절함 등이 쓰여 지고는 있지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리고 제주사회 전체 공간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틀을 가지고 고찰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제주 4·3 연구들도 대부분 제주 4·3으로 무너져 버린 마을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거시적인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여성과 제주 4·3'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19)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0) 김평선, 「제주4·3의 정치적 원인」, 『4·3과 역사』, 통권14,15호, 2015.

나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등과 같이 증언에 기반을 둔 생애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제주 4·3을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는 미시사적인 접근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마을에 초점을 맞추고 '마을의 제주 4·3'을 전체적으로 다룬 글은 이정주의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 마을의 역사」외에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4·3의 역사 공간을 마을 단위로 축소하여 한 마을의 제주 4·3 경험과 기억을 추적·분석하여 제주 4·3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마을 단위의 4·3 역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필자는 미시적 역사 연구 방법²¹⁾을 토대로 마을의 공동 기억 장소인 유적지를 중심으로 왜 4·3이 일어났는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리고 4·3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언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연구 대상 마을의 4·3 성격을 조명하고 마을의 4·3 트라우마에 주목하여 평화공존의 마을 공동체로 생성되는 치유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마을은 하귀이다.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4·3 때 중산간 마을이 아니었음에도 3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마을이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5월 30일 현재 신고자 14,028명 중 하귀마을이 속해있는 애월면 전체 희생자가 1501명이었는데, 신고된 애월면 전체 희생자 중 17.26%에 속하는 259명이 하귀마을 사람들이었다. 애월면 19 마을 중 가장 희생이 컸다.

둘째,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이 두드러진 마을로 해방 직후 애월면 인민위원회를 주도했던 마을이었다.

셋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영모원이란 추모공간을 조

21) 미시사란 비유하자면 줌인(zoom-in)의 역사이다.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한 부분을 당겨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이 속한 더 큰 부분을 무시하거나 사상(捨象)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겨 본 세밀한 상을 통해 그것의 콘텍스트를 이루는 더 큰 부분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탐색하자는 것이다.

미시사는 종래의 역사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실명적 역사'로서, 익명적 거대 집단과 평균적 개인의 존재 형태보다는 어떤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이름과 그들 간의 관계를 추적한다. 둘째는 '가능성의 역사'로서, 종래의 지나치게 좁고 엄격한 실증의 방식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입증 방식을 포용하고자 한다. 셋째는 '이야기로서의 역사'인데,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말로 풀어나가듯이 서술한다.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약 20년간은 미시사가 새로이 출현한 시기였다. 이탈리아 좌파 역사가인 카를로 긴즈부르크(Carlo Ginzburg), 조반니 레비(Giovanni Levi), 에두아르도 그렌디(Eduardo Grendi) 등이 그 선구자이다(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성하여 화해·공존의 길을 개척한 마을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4·3 트라우마 치유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제Ⅱ장에서는 하귀마을의 4·3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항일운동 중심으로 해방 전의 하귀마을을 다루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치활동·교육활동과 미군정과의 갈등 및 제주 4·3 시기의 저항과 학살의 경험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하귀마을의 저항과 인명 피해를 중심에 두고 하귀마을 4·3의 성격을 조명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4·3 증언과 영모원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의 해체 및 복원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4·3 이후의 마을의 시련과 4·3 트라우마 치유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에 활용할 주요 문헌자료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시-4·3유적답사길잡이』²²⁾, 『다시 하귀중학원을 기억하며』,²³⁾ 『4·3은 말한다』,²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²⁵⁾ 『영모원 관련서류』,²⁶⁾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²⁷⁾ 『이제사 말했수다』^{2,28)} 『4·3과 제주역사』²⁹⁾ 등이다.

22) 제주시/4·3연구소, 각, 2006.

23) 4·3연구소, 한울, 2013.

2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1-6권(6권은 미출판), 전예원, 1994-1998.

25)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선인, 2003.

26) 하귀리 발전위원회, 『영모원 관련 서류』, 2000~2016.

27)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8) 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 한울, 1989.

29)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II. 해방 전의 하귀마을과 항일운동

하귀마을은 물과 경작지,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연안 어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다. 하귀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탐라시대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제주도에 나타나고 있는 고인돌이 먹돌새기 일대와 외도천을 건너 하귀와 광령에 집중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하귀는 貴日村과³⁰⁾ 동일지역으로서 2,000~2,200여 년 전부터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헌상으로도 약 1,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향토사학자 김봉옥은 삼별초 항쟁과 관련하여 귀일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김통정이 한라산 북쪽 귀일촌에 바깥 외성으로 흙을 쌓고, 안쪽 성으로 돌을 쌓으니 이게 항과두성(缸坡頭城)이다. 이 외에 에월포에 나무로 성을 쌓았으며, 하귀포를 군항(軍港)으로 삼았다. 지금 동귀리를 군녕이(軍港洞의 속칭)라 함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성의 규모는 외성인 토성(土城)의 둘레가 15리나 된다. 성 안에는 백성들을 살게 했고, 돌로 쌓은 내성에는 관아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지대가 높고 동서로 하천이 있으므로 천연 요새를 이룬다

귀일촌은 삼별초의 임시 수부(首府)였기 때문에 서울의 언어 풍속까지도 전하여졌을 것이다.³¹⁾

숙종 28년(1702)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제주도 관내를 순력하면서 자연, 역사, 풍속, 산물, 방어 시설 등을 기록한 『탐라순력도』의 「飛揚放鹿」(제주서면 53개의

30) 탐라가 한반도에 성립한 국가의 중앙정부에 탐라군으로 종속된 것은 숙종 10년(1105)이었지만 현령이 중앙에서 파견된 시기는 의종대(1147-1170)부터이다. 의종 7년(1153)경에 탐라군에서 탐라현으로 개편되었고 현령 등의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희종 7년(1211)에 탐라현과 귀덕현으로 나누어졌고 고종 3년(1216)보다 앞선 시기에 탐라현이 탐라군으로 칭해지다가 이후 7년 쯤 지나, 제주(부사와 판관 파견)로 불렸다. 충렬왕 21년(1295)에는 제주목으로 개편, 충렬왕 26년(1300)에 이르러 제주목에 속했던 촌 가운데 14개의 촌이 동·서 방향으로 나뉘어 각각의 군현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귀덕현을 합하여, 고려 때 탐라민의 거주지는 대촌과 15개 군현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충렬왕 시기에 군현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14개의 촌중에 하나가 오늘날 하귀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귀일촌이다(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87-93쪽).

3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54-55쪽, 61쪽.

마을 위치와 지형 봉수대등을 담고 있음)에도 軍浪浦, 軍郎浦, 藻腐浦가 표기되어 있다. 하귀마을의 옛날 이름인 군녕이(軍浪浦, 軍郎浦, 軍港洞)는 삼별초 당시 향파두리성의 전초기지 및 군항지로 이용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1273년 여몽 연합군이 삼별초군 정벌 시 군랑포로 상륙하여 삼별초와 격전이 벌어져 파군봉과 오늘날 주로동³²⁾ 일대에는 병사들의 선혈과 시체가 즐비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땅은 흘린 피로 온통 붉었다고 한다.³³⁾ 이후 사람들은 이 주로동 일대를 '붉은 길'이라고 불렀는데 4·3 때도 이 붉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하귀라는 마을 이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단지 광해군 때(1609) 실시된 면리제도에 의해 상귀리, 하귀리로 분리되어 이때부터 하귀리라 칭해졌다고 보고 있다. 원래 하귀리 향사는 미수천 하구에 있었으나 구 애월면 하귀 출장소 자리로 향사가 이설되었다고 한다. 하귀마을이 미수천을 경계로 하귀 1, 2구로 분리된 시기는 1925년, 일제강점기 때였다.³⁴⁾

해방 직후에도 하귀마을은 하귀 1구와 2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귀 1구는 '군녕이'라고 속칭되기도 했던 것처럼 마을 구조가 단순했다. 그러나 하귀 2구는 미수동, 가문동, 개수동(훗날 학원동), 답동 등의 자연 마을이 있었는데 하귀 2구의 개수동만이 산 쪽으로 약간 올라간 위치에 있었고, 나머지 마을들은 모두 일주도로변이나 또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방 직후 하귀마을에는 500호에 2,8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

해방 직후의 교육 기관을 보면 일제강점기인 1940년 3월 25일 하귀사립심상소학교에서 시작된 하귀공립국민학교가 하귀 2구 미수동에 있었고, 하귀 1구에는 하귀중학원이 설립되어 하귀 1구 동민회관에서 중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제주 4·3 당시 하귀마을에는 강(姜,康), 고씨, 김씨, 정씨, 문씨, 장씨, 이씨, 배씨 등이 살았는데 그 중 강씨, 김씨, 고씨가 많이 살았다. 제주 4·3으로 빨갱이 마을이 된 하귀는 1953년에 동귀리와 귀일리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여 생존을 꾀했다. 6월 항쟁 이후 하귀마을 정체성 찾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1993년 9월 1일에 일시적으로 동귀와 귀일은 하귀리로 통합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북제주군 조

32) 주로동은 답동의 일부 마을이다(제주특별자치도, “하귀마을”, 제주의 마을, 2017. <http://jejuvill.jeu.go.kr/>).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교육박물관,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애월읍』, (주) 건국디자인 편집, 2014, 702쪽.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교육박물관, 앞의 책, 2014, 647쪽.

례로 하귀마을은 하귀 1리와 하귀 2리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귀마을은 항일운동 전통이 강한 곳이었다. 하귀마을 출신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는 김귀영(金貴榮) 강문일(康文一) 박영순(朴榮淳) 김홍규(金弘奎) 배두봉(裴斗鳳), 김용해(金容海), 김달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제의 주목을 받는 이른바 '요시찰 인물'들이었는데 주로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통한 항일투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³⁵⁾ 이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항일운동은 크게 3가지 방면으로 조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내에서의 노동운동과 결합된 항일투쟁, 둘째는 동아동향조합운동과 혁명적인 농민조합운동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항일투쟁, 셋째는 하귀에서 야학을 세우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중심의 항일투쟁 등을 들 수 있다.

1910년대 금지했던 일본으로의 도항이 일제의 노동정책에 의해 1922년에 자유도항제로 바뀌고 다음 해에 제주와 오사카 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제주민들이 일본으로 일을 찾아 떠났다. 하귀마을 역시 한 집에 1-2명씩 갈 정도로 일본으로의 출가 노동이 많았다.³⁶⁾ 거기서 하귀 출가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현실과 식민지 백성의 설움 등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해방된 조국과 새로운 세상을 찾고자 공부와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갔다. 그런데 1932년 일본 오사카 나시요도가와구에 위치한 오즈다케바야시 기업회사라는 방직공장에서 한국인 여공 36명을 무단 해고하자, 이에 대항하여 4월 22일 무단해고 반대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이 일어났다. 회사가 이를 묵살하자 5월 14일 다시 시위를 벌이며 공장에서 농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강제로 30명을 검거했다. 이 때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에서 활동하던 배두봉이 파업사건의 배후인물로 검거되어 1933년 6월 29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6월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였다.³⁷⁾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다. 그는 만기 출옥 후 고향 하귀리로 돌아와 김홍규, 박영순 등과 함께 야학활동을 통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일본으로의 출가 노동이 활성화되면서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는 제주민들이 늘어갔다. 그런데 일본인이 선박업을 독점하고 있어서 제주와 일본

35) 「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9. 3.12.

36) 고창선(1934년생, 하귀2리)의 증언(2016.11.15)

37) 『동아일보』, 1935. 8. 16.

오사카를 다니는 배 값이 그들에 의해 마음대로 책정되었다. 급기야 1920년대 말에 오면 일본 선박회사가 갑자기 배 값을 종전 8원에서 12원 50전으로 높게 올려 일본에 왕래가 많았던 제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 오사카 거주 제주민들은 배 값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선박업자들은 제주민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운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아통항조합운동'이 그것이다. 이것을 처음 추진한 이는 조천 사람인 고순흠이었다. 1928년 12월에 제주항해조합을 결성하여 먼저 추진하였으나 조합원이 적고 돈이 부족하여 도중하차하였다. 그 후 1930년대에 와서 오사카 노동조직을 이끌었던 김문준이 중심이 되어 '동아통항조합운동'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고룡환을 임대하여 출항하고, 나중에는 복목환을 사들여 자주운항을 추진하였다. 한때나마 우리 민족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오사카까지 제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었다. 동아통항조합운동에 김문준을 도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귀 사람이 있었다. 김달준과 김용해가 그들이다. 김달준과 김용해는 김문준과 함께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몸을 담고 있었다. 동아통항조합운동에 뛰어들기 전인 1920년대 후반기에는 오사카와 도쿄의 신간회 지부 간사 일을 맡아서 항일 투쟁을 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³⁸⁾

한편, 1932년 해녀항쟁을 계기로 많은 사회주의 항일운동가가 구속되면서 사회주의 항일운동은 타격을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 항일 노선이 구축되었다. 이것이 혁명적인 농민조합운동이다. 과거와는 달리 하층민의 기반 위에 해방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혁명적인 농민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항일운동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농민이나 하층민들이 많았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도 이익우를 중심으로 혁명적인 농민조합운동이 구우면(한림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신우면(애월면)에서도 혁명적인 농민조합 건설운동이 추진되었다. 비록 1935년 주동자들이 검거되어 조직이 붕괴되었지만 이 시기 혁명적인 농민조합운동경험은 민중의식 성장에 기여하였다. 하귀의 혁명적인 농민조합운동 중심에는 배두봉이 있었다.³⁹⁾

하귀마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역사적인 항일 투쟁은 1935년의 '하귀야학

38) 「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9. 3. 12.

39) 제주4·3연구소, 『4·3장정』 5, 1992. 18-19쪽.

회사건'이다. 1930년대 초에는 각 지역마다, 청년운동으로 야학을 통한 교육계몽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하귀에도 야학이 설치되었다. 1933년 8월, 하귀에 야학을 설치한 이는 박영순, 김홍규, 강문일이다. 박영순은 하귀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2년 동안 한문을 배우고 1926년 8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서 금구 소학교 야간부를 졸업하였다. 그는 전기제작소 공원으로 일하던 중 가정 사정으로 1933년 1월 귀향, 동년 8월 하귀 2구에서 강문일 등과 함께 향사에서 야학을 시작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다가 1934년 12월 야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귀1구에서 김홍규(金弘奎), 김을봉(金乙鳳) 등이 운영하던 야학과 통합하였다. 이에 신학문에 대한 동경과 애국의 열정을 지닌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식민지 수탈의 실상과 동포들의 고통스런 삶을 자각하면서 항일 의식을 키워갔다.

마침내 1935년 5월 5일 야학생 80여 명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뚝북개(관선동)에서 임니물(미수샘)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일본 경찰은 20여 명을 외도 주재소로 강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강문일, 박영순, 김홍규, 배두봉 등이 잡혀갔다. 그 외에도 강경생, 강창선, 김을봉, 고봉익, 양군삼, 양군칠 등 10여 명이 제주경찰서에 이송되었다가 목포지청에까지 끌려가면서 시련을 겪었다. 이른바 '하귀야학회사건'으로 강문일, 박영순, 김홍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고, 배두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⁴⁰⁾

하귀마을의 항일민족의식은 해방 후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동력이 되었다. 해방 직후 일제에 의해 옥고를 치렀던 30~40대의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이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귀마을의 자치활동과 교육활동을 주도하였다.⁴¹⁾

해방 후 하귀마을 항일운동가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제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1934년 대판지방재판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김귀영은 메이지

40) 제주도, 『제주항일운동사』, 1996, 627-632쪽.

41) 김용해는 제주도 건준·인민위원회 산업부장이었고, 애월면의 건준위원장이었으며 건준·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양군옥이었다. 하귀2구 구장이었던 고창옥 역시 애월면 인민위원회 간부를 임하고 하귀 중학원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홍규는 애월면 민청부위원장이었다(『4.3과 제주 역사』, 173-176쪽, 180쪽).

(明治)대학을 나온 사회주의자로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하귀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그는 영향을 끼쳤다.⁴²⁾ 박영순과 강문일은 하귀리 하귀중학원의 교사로 재임하였고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1947년 민관총파업 후 강행된 미군정의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생을 마감하였다.⁴³⁾ 배두봉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해 광복 후 친척이 운영하는 제주에서 가장 큰 비단물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1947년 3월 1일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대회' 직후 제주시 관덕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무차별 발포사건에 향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그는 미군정 포고령 제2회 및 법령 19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다. 3·1절 사건으로 8개월을 선고받고 그가 출소한 날은 1948년 11월이었다. 그 때, 제주사회는 4·3으로 암울했다. 결국, 한 달 후인 1948년 12월 말, 배두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농업학교로 끌려갔다가 12월 23일 토벌대에 의해 당시 제주지역 유지들과 함께 박석내에서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 35살이었다. 김용해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주로 하다가 해방 1년 전에 돌아왔다. 해방 직후 애월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산업부장으로 그리고 제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⁴⁴⁾ 그는 하귀마을 보다는 제주도 중앙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하귀 사람들에게는 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⁴⁵⁾ 그 역시 3·1사건 이후 미군정에 의해 투옥되었다.⁴⁶⁾

해방 직후 하귀마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고창욱과 양군욱

42) 해방 후 여수에서 '공생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여수 인민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여순 사건의 여파로 사망하였다.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044쪽).

43) 연구 부족으로 일제강점기 야학사건으로 박영순, 강문일과 함께 투옥되었던 김홍규의 해방 후의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3·1절 시위발포 사건과 4·3봉기 관련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해방 후 애월면 민청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증언과 4·3봉기 때 입산하여 죽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제사 말함수다』 2권, 193쪽) 그리고 왜 박영순과 강문일에게 주어진 독립 운동가 포장이 김홍규에게는 왜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풀지 못했다. 강문일과 박영순은 모두 어릴 때 한문 수학을 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서 금구소학교(金甌小學校) 야간부를 졸업 후, 화하류전기제작소(靴下留電氣製作所)에서 일하던 중 일본 공산당 당원 김귀영(金貴榮)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1933년 귀국하여 박영순과 함께 하귀리 2구에 야학을 설치·운영하였다. 1934년 12월 야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홍규(金弘奎)·김을봉(金乙鳳) 등이 하귀리 1구에서 운영하던 야학과 통합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4)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8,33, 54쪽

45)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1989, 115쪽 ; 제주4·3연구소, 『4·3장정』5, 1992, 18-19쪽.

46) 2008년 현재 도쿄에 살았던 김용해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3·1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석방된 후 4·3전 후로 다시 검거령이 내려져 목포로 피신했다가 1949년에 체포되어 18년 형을 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가 6.25 전쟁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됨 (4·3연구소/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제일제주인 증언 채록집』, 각, 2008, 42-43쪽).

이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말에 하귀 1·2 마을 구장을 하면서 마을민들의 신임을 받았던 사회주의자들이었다.⁴⁷⁾ 태평양 전쟁 이후 공출과 징용 그리고 징병의 고통에 허덕일 때 가능하면 하귀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과 달리 하귀마을은 일제강점기 구장을 했던 고창옥과 양군옥이 이끄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동력을 지닐 수 있었다.⁴⁸⁾

47)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1989, 135쪽, 143쪽. ; 제주4·3연구소, 『4·3장정』 5, 1992. 18-19쪽.

48) 『이제사 말함수다』 2, 64쪽에, 애월면 1대 인민위원회위원장은 고창옥, 2대 김덕준, 3대는 양군옥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4·3과 제주역사』, 173쪽에는 애월면 위원장에 김덕준(납읍), 부위원장에 양군옥으로 기술되고 있다. 또 『4·3 장정』 5, 17쪽에는 애월면 건준·인민위원장에 김덕준, 부위원장에 양군옥이라는 기록되어 있다. 고창옥과 양군옥은 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로 해방 전후에 하귀1구와 2구의 구장으로서 마을 지도자의 위상을 유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Ⅲ. 하귀마을의 4·3 경험

1.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활동과 하귀중학원

1) 인민위원회의 활동

제주민에게 해방은 일제의 강제 공출·노역·징용·징병 등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서의 해방이었다.⁴⁹⁾ 그런데, 해방 직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갈망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제주민에게 미군정은 친일파 등용, 식량정책 등 여러 실정으로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하귀마을은 사회주의 항일운동이 강했던 곳이었다. 과거 항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귀의 양군옥,⁵⁰⁾ 고창옥,⁵¹⁾ 김홍규, 강문일, 박영순 등의 마을 유지와 청년들이 해방이 되자 치안 조직을 만들어 일본 패잔병들의 횡포⁵²⁾와 일본 공권력이 사라진 해방 공간에서의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다. 9월에 건준·인민위원회가 면·리 단위까지 조직되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일본인의 횡포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귀인민위원회도 다른 지역처럼, 치안 유지활동과 함께, 일반 농사법, 소비조합을 통한 공산품, 생활필수품 공급 등의 자치활동을 펼쳤다. 하귀인민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또 다른 정책은 교육이었다. 1945년 10월,

49) 1945년 2월 9일 일본 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 결전에 대비해 7개 방면의 육·해군 결전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작전 암호명은 '결호(決號)작전'. 미군의 일본 본토 진출 가능 루트를 7개 지역으로 예상, 각 지역마다 대비작전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3월 12일 최고전쟁지도 회의인 이른바大本營(大本營) 각군 작전주임 참모회합에서는 미군의 상륙지점으로 제주도과 홋카이도(北海道)가 유력하다고 판단, '결1호 작전'(홋카이도)과 '결7호 작전'(제주도)이 보다 강도 높게 다루어졌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 전예원, 1998, 9쪽).

50) 해방 전후 현재 하귀1리의 구장이었고. 애월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4·3 전후로 가족과 월북하였다. 부인은 토벌대에 의해 보복학살 되었다. 『이제사 말함수다』 2, 145쪽.

51) 하귀 개물출신(개수동), 1947년 3.1사건으로 지명 수배를 받아 4.3 직전에 경찰에 잡혀서 형을 살고 나온 후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앞의 책, 277쪽).

52) 8.15이후 약 3개월간 일본 패잔병이 주둔하여 횡포를 부렸다. 일본군은 패배 후 68일이 지난 1945년.10.23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1월12일에 완료되었다. 일본군들은 조선인들의 폭동 방지를 위한 구실을 미군 측으로부터 허용 받은 무기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모리배들과 전쟁 물자에 대한 뒷거래를 했다. 엄청나 양의 군량미를 식량난에 허덕이는 제주도민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작태를 저질렀다(앞의 책, 86쪽).

에월면 인민위원회 간부였던 고창옥을 중심으로 마을 유지들과 젊은이들이 하귀중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을 시작하였다.⁵³⁾ 하귀중학원에는 8~9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였다. 그들 중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자가 많았다.⁵⁴⁾

道 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간부였던 김용해가 마을주민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면 일제강점기 구장을 지냈으면서도 마을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회주의자 양군옥과 고창옥이 마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하귀야학회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강문일과 박영순이 하귀중학원의 교사였고, 하귀야학회사건에 같이 연루되었던 김홍규 역시 에월면 민청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하귀공립국민학교 교장이었던 사회주의자 김용관이 하귀에 살았다. 하귀마을 인민위원회의 자치활동과 교육 활동은 활발했다. 미군정은 하귀마을을 좌익마을로 낙인을 찍고 주시하였다. 제주에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사이의 협조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이다. 그러나 하귀는 1947년 3·1절 발포 사건 이전에 이미 미군정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다. 친미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속에 미군정은 1946년 10월 말에 과도입법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미군정의 의도와 다르게 사회주의자인 인민위원회 소속 문도배와 김시택이 당선되었다. 그들이 우여곡절 속에 12월에 사퇴를 하면서 제주도 과도입법의원 재선거가 행해졌는데 하귀마을은 재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⁵⁵⁾ 그 후 3·1절 발포 사건과 민관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미군정의 검거 선봉이 몰아쳤다. 3·1절 행사를 주도했던 제주도 민진 부위원장이 김용해였고, 에월면 3·1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양군옥이었다.⁵⁶⁾ 3·1 사건과 민관 총파업으로 마을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구속되고 산으로 육지로 피신하는 상황

53) 해방될 때까지도 중등학교로는 제주농업학교와 1년제 서귀실수학교가 고작이었다. 8·15 직후 제주 읍내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앞의 제주 제일중학원(오현중 전신) 외에도 향교재단에서 추진한 제주초급중학교(제주중 전신), 그리고 여자학교인 제주고등여자학교(제주여중 전신), 제주 신성중학원(신성여중 전신) 등이 차례로 개교하였다. 또 지방에서도 하귀·에월·한림·대정·중문·김녕·조천중학원 등이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설립 추진되었다 (『4·3은 말한다』1권, 178쪽).

54) 4·3연구소, 『다시 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한울, 2013, 17쪽.

55) 1946년 10월말, 10월 항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실시된 과도입법의원선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선거를 보이콧한 것에 반하여 제주도는 인민위원회 출신의 과도입법위원을 당선시켰다. 제주도 입법의원으로서 뽑힌 문도배와 김시택이 서울에서 과도입법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미군정이 1947년 1월에 입법의원 재선거를 명령하면서 1월27일에서 2월3일에 걸쳐 재선거가 이루어져, 서귀리 오용국과 하귀리 김도현이 선출되었다. 이때 에월면에서는 하귀1,2구, 광평1,2구, 하가, 장전, 수산, 상귀 등 8개의 마을이 기권하였다. (제주4·3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1』 [신문편], 69쪽.

56)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180쪽, 187쪽.

속에서 마을은 텅 비어갔다. 그러한 하귀마을을 미군정은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감시하였다.

2) 하귀중학원과 미군정의 갈등

하귀중학원이 설립된 시기는 1945년 10월이었다. 이때 교육을 진행했던 곳은 하귀리 공회당(지금의 하귀1리 사무소)이었다. 하귀중학원은 그 후 11월 18일에 미군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5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중등교육을 진행하였다. 학교 설립의 중심적인 인물은 고창옥이었다. 그는 해방 전후 마을 구장으로서 애월면 인민위원회의 간부였으며 사회주의자였다. 하귀중학원은 1946년 8월 5일에 1학년 수료식을 거행하였고 미군정청 행정지시로 1946년 9월 1일,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였다. 3학년은 현재 하귀 1리 사무소(옛 진흥서당 터이며 하귀1리 공회당)에서, 2학년은 미수동의 현재 교회터(당시 공회당)에서 1학년 신입생은 바닷가의 가문동 향사에 수용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하귀중학원에 는 하귀 뿐만 아니라 상귀, 수산, 광령, 이호, 신업, 구업 등에 사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귀중학원 교사들도 대부분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하귀중학원 원장 고창옥과 야학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박영순, 강문일 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귀중학원생들은 민청이나 민애청⁵⁷⁾ 활동을 하며 모두가 잘 사는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자주적인 통일 조국을 건설해야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인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군정은 이러한 하귀중학원을 부정적인 눈초리로 주시하였다.

하귀중학원과 미군정과의 본격적인 대립은 1947년 3월 1일 발생한 3·1 사건 후 시작되었다. 1947년 민족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이 주도하는 3·1절 기념식에 하귀중학원 교사와 학생들 대부분이 참가하였다. 이 날 3·1절 발포사건으로 6명

57) 제주도에서의 진보적 청년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건준 청년동맹의 결성, 청년동맹으로 개편,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의 발전적 해소기, 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으로의 출범기 등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47년 1월에 결성된 민청은 3.2기념대회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였고 민청의 불법화로 같은 해 7월에 결성된 민애청이 제주4·3이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제주지방의 보수진영에서는 1946년 7월 최초로 보수청년단체인 독립촉성청년연맹을 결성하나 1947년 3월까지 활동이나 조직이 미미했다. 그러나 1947년 3월 이후 민청에 대한 탄압과 미군정의 비호에 힘입어 보수청년단체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1947년 3월 총파업 이후 들어온 서북청년회가 제주에 파견되었다(4·3연구소, 『4·3장정』 4, 1992, 28쪽).

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미군정과 제주도민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제주도민들은 경찰의 발포에 3·10 민관 총파업으로 대응하였다. 『제주신보』 1947년 3월 14일자에 3월 13일까지의 파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애월면에서는 '애월면 사무소·애월중·하귀중·우편국·금융조합'이 파업을 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후 강행된 미군정의 검거 선봉으로 제주 출신 교사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 타 지역에서 온 교사들이 제주교단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귀국민학교 교장 김용관이 검거되고 이북출신 문창무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애국가 사건'이 발생하여, 하귀초등학교 학생들도 열흘간이나 동맹휴학으로 맞섰다.⁵⁸⁾ 미군정은 응원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앞세워 이러한 마을의 움직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미군정은 특히 하귀마을의 여론을 주도했던 하귀중학원 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시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던 1947년 8월 27일 새벽, 경찰이 미수동을 포위하여 하귀중학원생 5명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검거하였다. 연행된 자들 중에는 하귀공립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⁵⁹⁾ 이 사건은 『제주신보』 1947년 8월 30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제1구 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 새벽 돌연히 애월면 하귀리 미수동에서 동리 중학생을 비롯한 국민학교 아동에까지 이르는 일대 검거를 단행하였는데 경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무허가 집회, 무허가 배라에 관한 증거서류가 발각된 것이 원인으로써 피검자 10여 명은 남로당 세포조직의 혐의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후 마을의 청년들은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어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산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학교에는 학생들이 들쭉날쭉했고, 재정난까지 겹쳐 엉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하귀중학원 기성회를 재조직하고 학교의 확장과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 하귀중학원은 정식 인가를 받고 모은 기금으로 파군봉 부근 속칭 '관과왓'에 부지를 확보하고 교실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47년 후반기에 서울에서 내려온 조정구가 하귀중학원을 인수하여 1948년 4·3을 전후한 시기에 단국중학교로 인가 받아 교장이 되었다. 그 후 하귀

58) 애국가 가사를 '조선사람을 대한사람'으로 부르라는 지침에 반발하여 동맹 휴학을 하였다(제주 4·3 연구소, 『이제사 말해준다』 2, 한울, 1989, 132-133쪽).

59) 이 시기에 8·15 검거 선봉으로 민전 의장으로 추대되었던 박경훈 등 30여 명의 사회인사와 공무원 등이 검속된 후 검거활동이 지속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 전예원, 1999, 449쪽).

중학원 학생들은 단국중학교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미군정의 검거로 많은 학생들이 산으로 피신하고 교사들도 제주를 떠나거나 산으로 올라가 버려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었다. 1948년 여름과 가을에 일부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고 수료증을 받았다. 그 후 조정구는 서울로 가버렸다. 결국 하귀중학원에서 출발했던 단국중학교는 1회 졸업생만을 배출하고 10월 말-11월 중순 경에 폐교되었다.⁶⁰⁾

해방 직후 하귀마을의 부풀었던 꿈은 깨어져 갔다. 4·3 무장봉기를 전후로 미군정의 탄압이 강화되자 그동안 마을을 이끌어나갔던 30~40대 인물들 중 일부는 육지나 일본으로 피신했고, 나머지 일부는 산으로 올랐다. 단국중학교 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 무장대가 되었는데, 하귀공립국민학교, 단국중학교 교사들 역시 상당수가 입산하여 무장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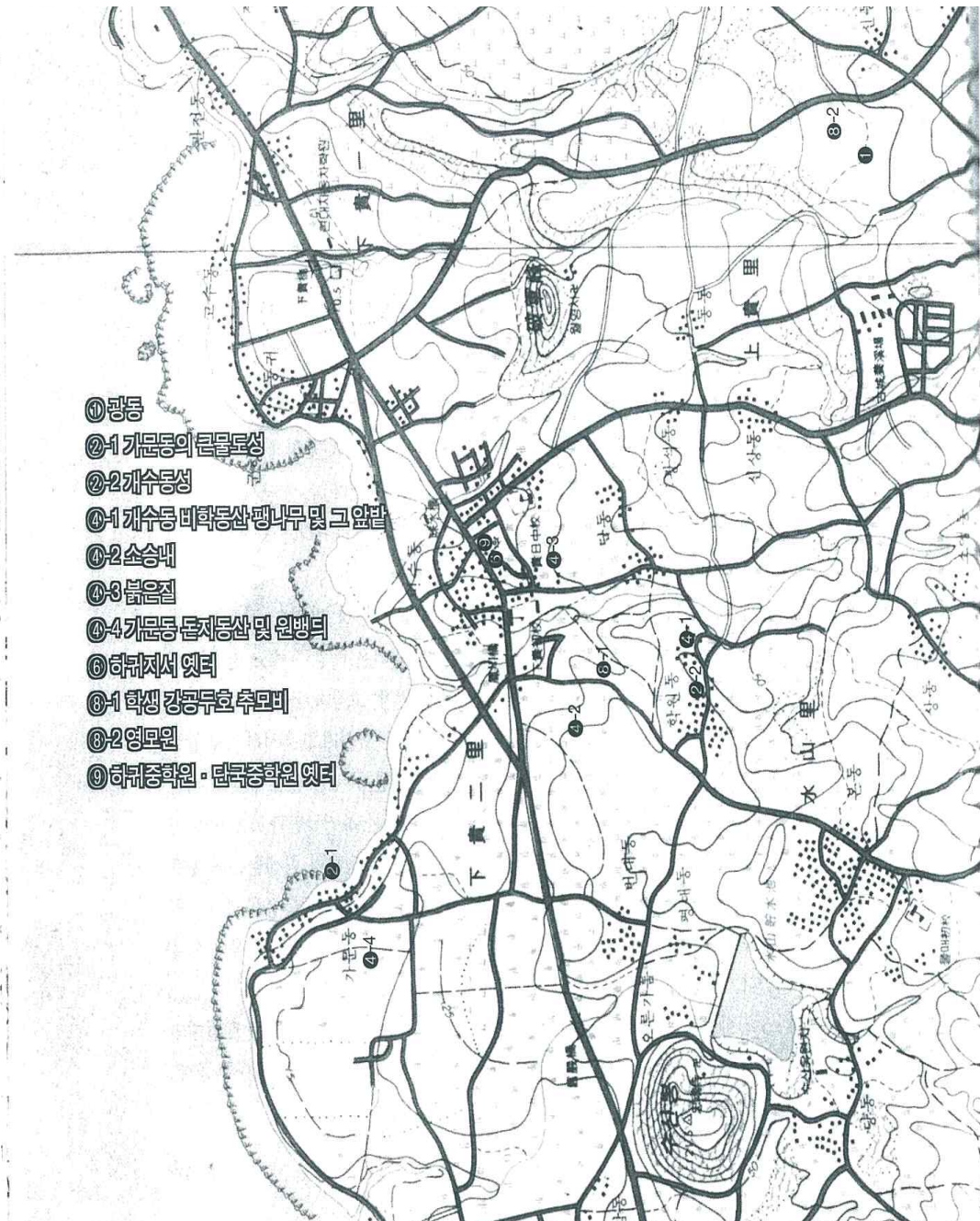
한편 1948년 단국중학교가 폐교된 이후 문기택 등이 중심이 되어 1951년 옛 진흥서당 터이며 단국중학교가 사용했던 현 하귀1리 사무소자리에서 '단국중학교'명을 사용하면서 중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귀 1리 안남동 주변에 새로운 교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태풍으로 짓던 교사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하귀중학원으로 시작된 단국중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⁶²⁾

60) 단국중학원이 폐교된 시기는 여러 증언에 의한 다른 기록이 존재한다(제민일보 취재반, 『4·3은 말한다. 6권』 191쪽에서는 10월말로 보고 제주도/4·3연구소, 『제주4·3유적 I』 애월리 편에서는 초토화 작전이 펼쳐지던 11월 중순으로 기록).

61) 『다시 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17쪽: 「제주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9, 3. 12.

62) 하귀에서 진분공장을 운영했던 고완천이 설립한 귀일중학교가 1953년부터 하귀마을과 주변 마을 학생들의 중등교육을 담당하였다(귀일중학교 홈페이지; 4·3연구소, 『이제사 말해주세요』, 한울, 1989, 113쪽).

<그림 1> 하귀마을의 4·3 유적지



(출처: 제주도·4·3 연구소, 『제주4·3유적지』1, 571쪽)

2. 5·10 총선거 거부와 마을주민 희생

1) 5·10 총선거 전후 상황

3·1절 발포사건, 3·10 민관총파업 이후 경찰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 파업주동자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 응원경찰의 수를 늘렸으며 서북청년회까지 파견하였다. 주민들을 무자비한 연행, 투옥, 고문, 그리고 금품을 갈취하며 제주를 분노와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달 만에 500여명이 체포되고 4·3 직전까지 1년간 2,500명이 구금되었다. 급기야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자, 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탄압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부정적인 제주민심이 조성되었다. 조직 노출로 위기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제주 민심에 부응하여 무장봉기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350여 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의 추방'이었다. 이 때 무장대는 하귀를 관할하였던 신엄지서를 공격하여 구엄, 중엄의 우익 인사를 공격하였다. 4·3 무장 봉기 후 무장대는 5·10 총선 때까지 한 달 동안 5·10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서 공격, 도로차단, 전화선 절단, 선거위원회 습격 등의 공격적인 태세를 지속하였다. 이 시기의 공격적인 무장대 태세를 기록한 '미군보고서'를 보면 하귀마을에서도 5·10 총선거 방해 공작으로 무장대의 교량 파괴, 도로 차단, 전화선 절단, 경찰 공격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이 시기에 무장대는 우익 인사를 공격하여 그 가족을 살해하는 역사적인 잘못을 저지른다.⁶⁴⁾

하귀마을 사람들은 5·10 총선거를 피하여 선거일 3~7일부터 산으로 올라갔다. 선거 당일에는 마을이 텅비어버렸다.⁶⁵⁾ 하귀선거위원회 위원마저도 산

63) 주한미군사령부, 「G-2일일보고서」, 4.9, 5.1, 5.3, 5.14; 미군 제6사단, 「G-2 일일보고서」, 1948.5.8.

64) 무장대는 우익으로 주목하던 구장 출신 강시중을 공격했는데 피신한 강시중을 대신하여 그의 아내 조영아를 학살하였다(『제민일보』, 1999. 03. 12).

65) 군정청의 제주도 선거 감시반의 일원이었던 스피어대위의 감시 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1948년 5월 9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했다. 애월 동쪽의 보호되지 않은 마을의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되돌아왔다. 이

으로 피신할 정도였다.⁶⁶⁾ 결국 하귀마을은 애월면에서 총선거를 거부한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5·10 총선거가 무산된 이후⁶⁷⁾ 강도 높은 토벌 작전이 강행되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토벌 강행으로 5·10 총선거를 거부한 하귀마을에서 미수동 주민 학살 사건, 가문동 원벵디 학살 사건, 개수동 진수리 학살 사건 등의 만행이 자행되었다. 선거를 거부해버린 하귀마을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 당시 하귀는 서로는 외도지서와 동으로는 신업지서의 감시 속에 갇혀있던 상황이었다. 토벌대의 계속되는 탄압에 마을은 공포에 떨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마을에 있을 수가 없었다. 청년 13명이 가문동 원벵디에서의 학살이 있기 하루 전인 5월 24일에 육지로 떠났고⁶⁸⁾ 육지로 갈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마을에서 사라졌다. 여름철이 되어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공방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48년 10월 말까지 하귀마을에도 학살 사건이 없었다.

2) 5·10 총선거 이후 하귀마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유는 주민들이 파괴분자들에 의해 산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9 [미국자료편 ③], 238-235쪽).

66) 당시 하귀마을 선관위원이었던 김석중(1999년.80. 애월읍 하귀1리, 당시 선관위원)은 “나를 비롯한 선관위원 10여 명이 선거 전날 청년들의 선동에 의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성리 위쪽 들판으로 올랐고, 투표 거부 운동에는 구장(이장)까지도 가담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3권, 전예원, 39쪽 재인용).

67) 미군정은 미군과 경비대, 경찰,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선거를 독려했지만 경계가 삼엄했던 제주 읍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선거인수 7,840,871명 가운데 7,487,649명이 투표해 95.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지역은 3개 선거구의 총 유권자 85,517명 중 53,698명이 투표해 62.8%의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중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선거인수 37,040명 중 3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룡국(吳龍國)이 당선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총선거인수 27,560명 중 11,912명 투표), 북제주군을구는 46.5%(총선거인수 20,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10-211쪽).

68) 안룡운(99년, 69. 하귀1리)의 증언.(앞의 책, 43쪽).

풍선으로 마을을 떠났던 청년들은 추자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 계획으로는 육지부로 가려고 했지만, 3척의 여선이 바람에 의지해 운항하다 보니 속도가 각기 달랐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간격을 맞추다 보니 겨우 추자도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청년들은 제주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명목의 진술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 풀려 나왔다.

<표1> 5·10 총선거 이후 하귀마을 학살사건 개요

연 번	학살사건	날짜	희생자 수	가해자	내 용
1	미수동 주민 학살	1948. 5. 12	4명	토벌대	미수동에서 도로를 고치던 30대 후반·40대 마을 유지들이 경찰들에 의해 학살됨 ⁶⁹⁾ 과군봉 부근 밭에서 시신 발견
2	강중수 피살	1948. 5. 13	1명	토벌대	일자무식 농부였던 그는 해변 근처에서 말을 방목하다 10시 경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수산봉 근처에서 사살됨. ⁷⁰⁾
3	조영아 피살	1948. 5. 21	1명	무장대	무장대의 공격으로 일제강점기 구장출신 강시중의 아내가 피살됨.
4	가문동원 벙디에서 의 학살	1948. 5. 25	3명	토벌대	토벌대가 마을주민들을 돈지동산에 모아 놓고 서로 뺨 때리기 등을 시키고 총개머리판으로 마구 구타한 후 주민 3명을 '원벙디' 별판에서 사살함.
5	개수동 진수리에 서의 학살	1948. 5. 26	3명	토벌대	새벽녘에 마을을 포위하고 토벌대는 주민 3명을 '진수리'라는 곳에서 사살함 (2명은 60,70대)

위 <표1>에 기술된 학살 사건을 보면 모두 5·10 총선거가 있었던 5월에 자행되고 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30대 후반에서 70대의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왜 죽었을까? 그 이유를 대표적인 당시 가문동 원벙디 학살 사건을 살펴보자.

가문동은 하귀 2리에 속한 해안 마을이다. 이 마을에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5월 25일이었다. 5월 21일 무장대의 공격으로 민보단장 김시중의 처,

69) 미24군단 정보보고서에 '5월21일 새벽 4시 하귀리에서 경찰에 의해 습격자 4명이 사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조사 결과 5월21일에는 하귀에 그러한 사건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제민일보 4·3취재반은 경찰에서 앞의 연행자4명을 5월 21일에 사살하고 상부에는 마치 '폭도 4명을 사살'한 것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앞의 책 3권, 40쪽).

70) 姜宗圭(75. 涯月邑 下貴1里, 姜宗洙의 동생)의 증언(앞의 책 3권, 40쪽).

조영아가 피살되고 나서 4일 후의 일이었다. 5월 25일 새벽 4시 경, 중업파출소 경찰과 대동청년단이 가문동을 포위하여 마을주민 70-80명을 돈지동산에 모아 놓고 서로 뺨 때리기 등을 시키고 총 개머리판으로 마구 구타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민 3명을 지명하여 '원벵디' 벌판에서 학살하였다. 이 날 학살당한 사람은 임석부(44), 현을호(55), 문수택(30) 등이었다.

가문동 원벵디에서의 학살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새벽에 토벌대가 개수동 마을을 포위하였다. 그리고는 60, 70대의 노인 2명과 20대의 청년 1명을 끌고 가서 속칭 '진수리'라는 곳에서 사살하였다.

㉑ 5·10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모두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당시 유신동으로 피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곧 마을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보이면 총살한다는 소문도 돌았죠. 그러자 동네 청년들 사이에서는 뚫배라도 타서 추자도로 피하자는 의견이 돌았어요. 숨었던 청년들 몇 명이 가문동으로 내려왔죠. 아마 이런 정보가 경찰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5월 25일 동틀 무렵 신엄지서에 주둔하고 있던 경찰과 서청이 들이닥쳤어요. 이들은 가가호호 수색하며 동네 사람들을 돈지동산에 다 모이라고 하고는 서로 싸우게 했어요. 이날 임석부, 현을호, 문수택 세 명을 '원벵디'로 끌고 가서 총살했습니다. 가문동 첫 희생자죠. 임석부 씨는 원래 광령3리 '차종이' 사람인데 나무 가지러 산에 갔다 잡혔고, 문수택 씨는 좀 바보스런 분이었어요. 현을호 씨는 말을 길렀는데 서청이 말을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하자 죽여버린 거예요.⁷¹⁾

㉒ 그들은 포구 앞 돈지동산에 마을 사람들을 집결시켰어. 한사람씩 불러내 취조하면서 사람들끼리 싸움질을 시켰지. 남녀끼리도 뺨을 서로 때리도록 했어. 한쪽에서는 사람 위에 올라가 절근절근 밟기도 했고, 총머리로 때리기도 했어. 계속 싸움질을 시켰는데 한 나이든 남자가 “내 평생 남을 때린 적 없다.”면서 상대를 때리지 않자 이번엔 몽둥이질을 했어. …… 세 사람을 끌고 갔지. 그들을 끌고 가면서 “똥 맞혀 와 반찬을 해먹겠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⁷²⁾

위 ㉑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토벌대가 5·10 총선거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학살을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서청의 횡포에 대한 대항이 죽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㉒의 증언 내용을 보면, 원벵디에서의 학살에

71) 임찬부(2003. 74세) 증언(제주도/ 4·3연구소, 『제주시 4·3유적』, 574쪽).

72) 고현((99년 80, 에월읍 하귀2리) 증언(『4·3은 말한다』, 42쪽).

서는 상대편 빨때리기를 즐기다가 학살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토벌대가 학살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제주사람들은 반공국가 건설에서 사라져야 할 빨갱이 생명체로 토벌대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⁷³⁾

3. 초토화 작전 시기 마을 주민 대량 학살

1) 초토화 작전 시기부터 1949년 말까지 상황

남과 북에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0월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승만 정부는 초토화 작전⁷⁴⁾을 강행하여 제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하귀 주민들이 주로 희생된 때가 역시 초토화 작전 시기이다. 특히 9연대와 2연대가 교체되는 1948년 12월에 집중적으로 희생되었다. 외도지서 '장작사건', 비학 동산에서의 학살, 붉은 질 에서의 학살, 눈감으라 사건과 자운당에서의 학살, 외도지서 서쪽 밭에서의 학살 등이 모두 12월에 자행되었다. 12월과 1월에는 무장대의 공격으로 민보단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반 사람들도 희생되기도 하였다.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면서 한 집안 형제가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각각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학살 방법 역시 더욱 잔인해졌으며, 무장대의 공격으로 토벌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민들이 하귀지서 설치를 자청, 하귀지서가 설치되었다. 초토화 시기에 무장대와 마을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는 붕괴되어 갔다.

73) 4·3이 발발하자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에 휘방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소멸해야 한다”고 호언한바 있다. 4·3 당시 빨갱이 소탕은 반공국가 건국과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지배와 통제의 정치기술이었다(김성례, 「국가 폭력과 여성 체험」, 『창작과 비평』 26권 4호, 1998, 343-344쪽).

74) 김종민은 '초토화 작전 배경'으로 남북에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시기이고 김구, 김규식 등의 통일 운동이 지속되어 이승만의 정치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미소 간의 냉전 속에 양군 철수 문제가 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미군 철수를 12월에 마무리 한다는 미 정부의 방침, 유엔의 정부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통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주 4·3에 대한 부담 등을 주장하였다(김종민, 「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 역사비평사, 1998).

2). 초토화 작전 시기부터 1949년 말까지의 학살 사건

< 표 2> 초토화 작전 시기부터 1949년 말까지의 하귀마을 학살사건의 개요

연번	학살사건	날짜	희생자 수	가해자	내 용
1	11월 11일 학살	1948.11. 11	3명 (40대 후반-70대, 여성 2)	토벌대	11월 11일 학살은 그날 새벽 무장대 신임우익인사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하귀민 학살
2	외도지서 장작사건	1948.12.5	30명 (20대가 54.7%)	토벌대	육지 형무소로 보내짐
3	비학동 산에서의 학살	1948.12.10	36명	토벌대	대부분 50대 60대가 희생됨
4	붉은길에서의 학살	1948. 12. 12.	13명	토벌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가 희생됨
5	자운당에서의 학살	1948. 12. 28	72명	토벌대	48.12.20, 하귀초등학교 '눈감으라 사건'과 하귀1리 공회당에서 강제로 잡혀간 사람들이 희생됨
6	외도지서 서쪽 밭에서의 학살	1948. 12. 21	4명 이상	토벌대	
7	민보단장 고승천과 그의 아내 문무생 피살	1948. 12.31	3명 (1명은 휴유장애인)	무장대	가문동 민가에서 무장대가 식량 약탈, 하귀에 주둔한 군인 공격, 하귀공립초등학교, 향사 등 소각
8	외도리입구에서의 학살	1949. 1.24	10명 이상	토벌대	대부분 여성임
9	하귀공립초등학교 소각	1949. 1.8	?	무장대	하귀공립초등학교 전소
10	소송내 학살	1949. 4.	2명	토벌대	

위 <표 2>를 보면 초토화시기와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된 후 선무공작과 함께 토벌이 강행되었던 시기에 하귀마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 사건은

10건이다. 그 10건의 학살 사건 중 8건이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었고 9건이 초토화 작전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초토화 작전 시기에 자행된 9건의 학살 사건 중 6건이 모두 12월에 행해지고 있다. 1948년 12월은 9연대와 2연대가 교체되는 달로, 2연대가 교체되기 전의 전과 올리기에 급급한 시기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하귀마을 내에서 일어났던 10건의 학살 사건에 의해 173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그 중 3명은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학살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학살사건을 조명하여 살펴보자.

(1) 토벌대에 의한 학살사건

① 외도지서 장작사건

현재 외도지서는 1948년 12월 5일 '외도지서 장작사건'을 일으켰던 곳으로 일제 때 외도경찰관주재소였다. 외도지서는 해방 후 제주읍 서부지역인 외도·내도·도평·해안은 물론 애월면 동부지역까지 담당하였는데, 4·3 당시 응원경찰과 서청단원들이 주둔하기도 했던 곳으로 잔인한 경찰들의 행위가 민심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곳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 초토화작전 강행을 전후하여 지역 청년들을 특공대로 조직하여 토벌의 한축으로 이용했다. 하귀지서가 1949년 1월 29일에 설립되기 전까지 외도지서는 하귀 사람들에게 공포의 장소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후 지속된 토벌대의 탄압으로 마을에는 청년들이 없었다. 모두가 숨어버린 것이다. 마을 청년들을 잡기 위하여 1948년 12월 5일경, 하귀 주민들에게 월동용 장작을 하러 간다고 톱과 도끼 등을 갖고 지서 앞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 때 모인 사람 대부분은 노인과 부녀자들이었고, 경찰에게 조금도 추궁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여긴 젊은 남자들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지서에 모이자마자 경찰은 '도로 차단 죄', '전봇대 끊은 죄' 등, 억지로 무장대와 엮어 죄를 고백하라고 추궁하며 청장년들을 차에 태웠다. 차에 태워진 사람들은 1948년 12월, 군법회의⁷⁵⁾를 거쳐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1년 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게 밀리던 국군에 의해 대부분 집단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75) '4·3 진상보고서'에서는 4·3이시기에 행해진 군법회의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448-467쪽).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은 젊다는 것이 희생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저항이 많았던 하귀마을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때,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하귀 사람은 30명으로, 17세부터 46세까지의 남자들이었다. 그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였다.⁷⁶⁾

② 비학동산에서의 학살 사건

1948월 12월 10일, 경찰은 소위 ‘도피자 가족’을 가려내어 개수동 비학동산 앞밭에서, 개수동 주민과 소개민 36명을 학살하였다.

㉔ 김호중 씨 부인이 나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지서로 갔더니 경찰이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지 못하면 너만이라도 오라고 했다’고 말이죠. 김호중은 결국 아무도 못 데리고 혼자만 지서로 가야 했어요. 그런 김호중을 경찰은 12월 7일 총살하고 개수동에 대한 소탕령을 내렸죠.

그 날(12월 10일) 아침 개수동 사람들을 죽일 것이니 미리 대처하라는 연락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우물쭈물 하는 사이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아침 9시경에 마을을 포위하고 들어왔죠. 토벌대는 비학동산에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우선 도피자 가족들 전부 나오라고 했어요. 이때 김호중은 이미 죽었는데 73세 된 그 부친은 아들이 없으니까 나갔죠. 이런 경우에는 토벌대에서도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쏘아 버렸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 분은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말을 해주었다면 살았을 건데... 이날 도피자 가족 집들은 다 불태워졌고, 소개민을 포함해 36명(개수동 출신 31명)이 총살당했어요. 토벌대는 10시경부터 선별한 주민들을 앞밭으로 몰아넣고 총살한 후 1시경에는 집들을 불태웠죠. 그 때 사람들을 죽인 장소가 현재 동민회관 바로 앞 밭이에요.』⁷⁷⁾

위 ㉔의 증언 내용은 비학동산에서의 학살이 개수동 청년들을 대상으로 펼친 자수 공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토벌대가 자행한 보복 학살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김낙준(여, 69), 고희진(남, 65), 김재봉(남, 65), 고영삼(남, 62), 고두주(남, 60대), 백용홍(여, 60대), 현귀덕(60대), 강화순(여, 61), 강승학(남, 50대), 김지수(남, 50대), 강기유(남, 49), 고정규의 아내(30), 김계생(여,

76) 영모원 조성과정에서 수집한 하귀 수형인 명부를 보면 1948년 12월에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하귀 사람은 30명으로 이때 제주전체 수형자 871명의 3.44%를 차지하였다. 이 당시 하귀 수형자들의 나이는 17에서 46세까지 해당하는데 11-20세(6) 20%, 21-30세(17) 54.7%, 31-40세(6) 20%, 41-50세(1) 3.3%이다.

77) 고창선(03년 69, 하귀1리 학원동) 증언(제주도 4·3유적지』1, 575-576쪽)

29), 강두중(남, 16) 등이었다. 이들 외에도 장전리와 광령리에서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 내려온 사람들도 함께 36명이 총살되었다. 이날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50~60대였다.

이 날 토벌대는 임신한 여인의 겨드랑이에 밧줄을 묶어 비학동산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고 마구 찼다. 주민들에게는 그 광경을 강제로 보도록 했다고 한다. 개수동 비학동산에 있던 그 역사의 팽나무는 학살의 기억을 지우려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없어졌다.

㉔ 토벌대는 주민들이 비학동산에 모이자마자 먼저 한 여인을 끌어내더니 옷을 훌쩍 벗겼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임신부였습니다. 남편이 산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그 여인의 겨드랑이에 밧줄을 묶어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아 마구 찼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쏠 것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며 소리쳤습니다. …… 소위 '폭도가죽'을 가리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외도지서 장작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끌려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소개민이라서 당초 외도지서의 동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개 온 우리에게 집과 밭을 빌려준 주인집 노인이 톱과 도끼를 들고 외도지서로 가려 하자 그 분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대신 갔던 것입니다. 우린 4형제였는데 14살이던 내가 장남이고 밑으로 11살, 7살, 그리고 젓먹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姜仁八, 34)는 죽음을 직감하고 젓먹이를 억지로 떼어 냈습니다. 그러나 나와 11살 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묶였지요. 어머니의 눈물어린 호소로 11살 난 동생은 풀려났지만 내게는 '눈망울이 둥글둥글한 게 폭도들에게 연락함직한 놈'이라며 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 순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찼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형제는 줄지에 고아가 됐는데 7살 난 동생은 홍역으로, 젓먹이 막내는 젓을 못 먹어 곧 죽었습니다.⁷⁸⁾

㉔의 증언 내용에서 2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중산간 지역 사람들은 해안으로 와서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안이건, 중산간이건 죽음의 이유는 일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둘째, 학

78) 안인행 (67세, 애월읍 장전리, 2001. 8.21.채록) 증언(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395쪽)

살과정에서의 광기의 병리현상을 볼 수 있다. 산에 올라간 남편을 둔 여성을 죽일 때 여성을 알몸으로 만들고 자궁을 파괴하는 행위가 그것이다.⁷⁹⁾ 그들은 모두 폭도의 아내, 폭도의 아들, 폭도의 부모라는 이유 등으로 죽었다.

③ 답동 붉은 질에서의 학살

1948년 12월 12일, 개수동 비학동산에서의 학살이 있고 나서 이틀 후 청년 13명이 답동 붉은 질에서 학살되었다.

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는 데다 앞서 개수동 피신자 가족들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벌대는 죄를 자백하라며 무지막지한 구타를 했습니다. 난 단국중학교 학생이라 특히 '민애청 가담 여부'를 추궁 받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시위에 한번 가담한 것밖에 없다'면 일관된 진술로 우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총살된 겁니다. 그날 토벌대는 13명을 추려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취조를 멈추고 돌아가면서 '내일 외도 지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 맞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요. 그러나 토벌대는 다음날 외도지서로 찾아간 13명을 속칭 '붉은 질에서 학살했습니다.'⁸⁰⁾

이때, 숨어서 연명했던 젊은이들이 거의 죽었다. 젊다는 이유가 죽음의 요인이었다. 역시 저항이 많았던 하귀마을에 대한 보복학살이었다. 특히 개수동 마을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 14세에 4·3을 경험했던 고창선씨는 개수동(학원동)의 호적과 족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희생자를 파악한 결과, 당시 43가호 56세대가 살던 마을에서 63명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⁸¹⁾

④ 눈 감으라 사건

현재 하귀초등학교는 1948년 12월 20일, '눈 감으라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곳은 해방 직후부터 4·3 시기를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의 희망과 절망을 모두 경험했던 장소이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4월에 만들어진 진흥서당을 토대로 하

79) 종교학 교수 김성례는 학살자는 산에 올라간 남편을 둔 여성은 빨갱이를 양산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국가 폭력과 여성 체험』, 『창작과 비평』 26권 4호, 1998, 347-348쪽).

80) 강태중(99년 68. 애월읍 하귀2리) 증언(『4·3은 말한다』, 『제민일보』, 1999. 03. 19).

81)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396쪽.

여 1940년 3월 25일에 하귀사립심상소학교로 인가 받아, 같은 해 9월 1일에 개교 하였다. 이러한 초등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하귀중학 원 원장이었던 고창옥이었다. 하귀공립국민학교는 1945년 7-10월에는 일본 군대 주둔으로 잠시 휴교되었다. 1946년 10월에 사립에서 하귀공립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1일에 개교하였다. 제주 4·3 시기인 1948년 12월에는 눈감으 라 사건과 무장대의 공격을 당했던 곳이며, 1949년 1월에는 또 다시 무장대의 공 격을 당하여 거의 타버렸다. 1950년 4월 30일에 4개 교실 목조건축이 신축되어 초등교육이 지속되었고 1996년에 하귀초등학교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 4·3 초토화 시기, 하귀마을이 경험한 '눈감으라 사건'을 살펴보자. 1948 년 12월 20일, 토벌대는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집결시켰다. 사람들에게 눈감 으라 하고는, 산에서 붙잡혀온 사람에게 아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였다. 그때 무차별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은 제주읍내로 끌려갔다가 12월 28일, 자운당에서 희생되었다.

㉞ 48년 11월 며칠(음력) 날짜는 모르겠는데 소개 온 사람과 하귀 2구에 사는 사람들 전부 지금 하귀국민학교 운동장, 거길 다 채울 정도 인데, 거기서 전부 눈을 감으라 했어, “이놈이 어느 놈하고 산에 연락 현 놈이나, 이렇게 모여 났으니 가르쳐라” 하는 거야. 산 에서 잡은 폭도 한 사람을 우리한테 보이지 않고 담요 같은 걸로 막아서 가르치라고 한 거야, 게서 이놈이 가르친 사람들, 거의 젊은 사람들인디 차로 가득 실어가, 그때는 자운 당으로 직접 안 실어가고 시(당시는 제주읍)로 실어가는 디 거기서 어떤 심판을 받았, 무슨 협의를 받았는지, 자운당으로 왕 죽은 거지.⁸²⁾

㉟ 그 날 (자운당에서) 죽은 사람이 72명이다. 공회당 자리(현 하귀1리 마을회관)에서 2연대 군인들과 제주경찰서 경찰들이 합동으로 하귀1리를 포위하고 들어왔다. 공회당으 로 모이라고 했다. 순경 중에 하귀중학원 동창 김○○(고성출신)이 보였다. 부친은 민보 단 부단장일 때인데 김○○이가 호명을 했다. 소개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많이 호명되어 나갔다. 민물동산에 조흥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하귀 1리에서 실어 간 사람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죽은 사람의 숫자는 19명으로 알고 있다.⁸³⁾

82) 『이제사 말해수다』 2, 81-82쪽(증언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음).

83) 고택주 (03년 74, 삼도1동 / 당시 하귀1리) 증언(『오승국의 4·3유적을 찾아서』, 『한라일 보』, 2008.11.18).

㉑, ㉒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하귀 2리, 하귀공립국립학교에서 '눈감으라 사건'이 있던 1948년 12월 20일에, 하귀1리에서도 마을민들을 공회당에 모이게 하고는 군인과 경찰이 제주읍으로 강제 연행하였고, 그들도 12월 28일에 자운당에서 학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운당에서 죽은 사람은 72명이었다.

증언 내용을 살펴다 보면, 토벌대의 한 축으로 토벌의 역할을 담당했던 민보단원도 경찰에 의해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보단의 시초는 5·10 총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으로 구성되었던 향보단이었다. 5·10 총선거 후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아 거의 해체되었는데, 제주에서는 민보단으로 변신하여 군경의 토벌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㉑ 증언에서는 민보단의 부단장이 학살되었다. 이것은 제주 4·3의 희생자들 중에는 경찰이나 군인들과의 개인적인 이유가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당시 제주도민은 토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⑤ 자운당에서의 학살

자운당은 12월 20일에 제주읍으로 연행되었던 하귀1리, 하귀2리 사람들이 1948년 12월 28일에 학살되었던 곳이다. 이때 죽은 자들은 토벌대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자운당에 방치되었다. 6개월이 지난 후 겨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이때 수습된 시신은 72구였다. 그런데 12월 28일, 이날에는 애월로 소개 간담읍 사람들도 자운당에서 학살되었다. 그렇다면 48년 12월 28일에 자운당에서 학살된 사람이 수습된 시신 72구가 전부라면 48년 12월 20일에 하귀1리와 2리에서 제주읍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가 자운당에서 학살된 사람 수가 72명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1960년 국회 '4·3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신고된 하귀 희생자 중 자운당에서 희생된 사람은 신고된 39명 중 26명으로 모두 동귀리(지금의 하귀1리) 주민으로 기록되어 있고, 희생 날짜 역시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다.⁸⁴⁾ 이것은 하귀 1리 자운당 학살 희생자가 19명이고 희생날짜가 12월 28일이라는 앞의 자운당 학살 관련 증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운당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애월 조금 못 미쳐서 '자운당'과 '하가리' 도로 표지판이 보인다. 하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일주도로

84) 『4·3은 말한다』 3권, 369-370쪽.

에 붙은 두 번째 동쪽 발과 길 아래 대각선 방향의 발이 모두 자운당 희생터이다.

⑥ 외도지서 서쪽 발에서의 학살

12월 21일, 토벌대는 하귀 등지에서 체포한 사람들을 외도지서 서쪽 발에서 집단학살했다. 이때 희생자는 김원호(남, 28), 고무생(여, 39, 양군옥 처), 김용옥, 정달현(남, 41) 등이다.

희생자 정달현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민보단 활동을 했던 그의 동생 정달수는 49년 1월에 무장대의 공격으로 희생되었다. 정달현, 정달수 형제의 죽음은 초토화작전이 강행되면서 심화되는 4·3의 복잡하고도 처참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⑦ 외도리 입구에서의 학살

1949년 1월 24일 저녁 무렵, 고대규(高大奎)의 아내 김산춘(28)은 남편 고대규가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외도리 입구에서 아기와 함께 총살되었다. 김산춘은 비학동산에서 비참하게 학살되었던 임산부와 동서지간이었다. 그날 외도리에서는 이들 모자 외에도 강선(여, 60대), 강계효(남, 50대), 신이신(여, 50대), 김정복(여, 37), 강재생(여, 30대), 김정(여, 30대), 강선행(여), 강경수(20대) 등이 함께 희생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으며, 남편이나 자식이 피신했다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1949년에도 하귀 사람들에 대한 토벌대의 보복학살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⑧ 소승내 발에서의 학살

1949년 4월, 하귀초등학교 서남쪽 150미터 지점의 속칭 ‘소승내’ 발에서 2명이 남녀 한청단원들의 수많은 철창에 찢려 학살되었다.

㉠ 4·3 발발 이듬해로 기억돼요 금덕리에서 소개 온 강조순이라는 18살 처녀가 하귀 지서⁸⁵⁾로 끌려와 매일 전기 고문을 받았어요. 그녀의 오빠가 육지 형무소에 갔다는 게

85) 원래 하귀지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1949년 1월29일 경에 설립되었다. 하귀지서는 특공대를 관리

빌미였지요. 그녀는 고문을 받다 한 착한 순경으로 도움으로 도망쳐 바닷가에 숨었어요. 9일간이나 바닷가에 숨어 ‘넙피’를 뜯어먹으며 버티다가 결국엔 경찰에 잡혔지요. 경찰은 하귀국교 서넉 소송넷가 밭에 남녀 한청단원을 집합시킨 후 그녀를 데려왔어요. 그녀는 우리 앞에 끌려왔을 때 이미 초주검 상태였어요. 경찰은 그녀를 훌쩍 벗긴 후 “여자니까 여자 한 청년 단원이 나서서 철창으로 찌르라. 찌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신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협박에 못 이겨 단장인 한 여자가 나서서 먼저 찢렸어요. 경찰은 모두들 한 번에 찢르라고 했어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 일로 나는 집에 와서 토하고 한동안 몹시 앓았어요. 친구들도 나처럼 앓았다고 했어요. 그 일은 죽어서야 잊혀지겠죠. 한 경찰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못쓸 짓을 하려 다 마음대로 안 되자 그렇게 한 거예요⁸⁶⁾

㉞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4.3이 일어나자, 제주민을 대상으로 민보단과 특공대 그리고 여자 한청단을 조직, 4.3 진압과 학살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여 마을민간의 증오관계를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토벌대는 제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제주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려 제주민끼리 갈등하고 증오하는 사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귀중학원 교사였던 문두희는 고성리 출신으로 성에서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 습격 시 도망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었다. 하귀중학원 교사 경력은 토벌대에게는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무장대에 의한 학살

1948년 12월 30일 경, 무장대가 내려와 하귀마을을 기습하여 하귀공립국민학교와 향사 그리고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강명수 씨 댁 등 민가 4~5채를 태우고 개수동의 민보단장 고승천과 부인 문무생을 학살했다. 그리고 가문동을 기습해 민가 여러 채를 불태우고 식량을 약탈해갔다. 이어서 1949년 1월에 다시 무장대가 기습하여 하귀공립국민학교에 불을 질렀다.⁸⁷⁾

하고 대한 청년단을 훈련시켰다. 특공대는 민보단이나 한청 단원 중 젊은이 20명 정도를 차출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 경비를 서거나 순찰 활동을 했다. 하귀지서는 또한 젊은 여성들을 1기, 2기에 걸쳐 각 100명 씩 뽑아 여자 한청단을 만들어 철창이나 목총을 지급하여 매일 훈련하고 보초 근무를 서도록 했다. 하귀지서의 초대 지서장은 일제강점기 구장 출신으로 구업을 우의 세력으로 만들었던 마을 유지인 문영백이며 경찰은 구업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구업 사람들은 하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였다(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해준다』 2권, 한울, 1989, 81쪽).

86) 김계순(여.03년 72세, 당시 하귀1리) 증언(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397쪽).

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에월업, 2014, 750쪽.

① 경찰관들은 산의 놈들과 붙어 다닌다고 우리 몰안 댕기고 산의 놈들은 경찰들이랑 붙은 댕겜젠 우릴 경헌거라, 그러니 사름이 살 수가 없었던 거라……

해방되고 한 2년 만일거라, 3·1운동이 시작됐지. 그러고 도 2년쯤 지나가난, 내가 아 마 스물넷이 돼실거라. 사름덜이, 4·3이 나난 이레가고 저레 숨고 살 수가 없다고 허둥대 는디, 나중엔 산에서덜 내려완 막 난리친 거라. 그때 밤이라, 갑자기 산사람덜이 습격 완 집에 불을 팍 팍 붙이난 …… 걸린 사름은 막 때리고, 죽이고 침…, 도망간 사름은 살아 났어. 겐디 내가 그때 창에 맞은 거라.⁸⁸⁾

무장대의 공격이 있고 나서 하귀 사람들은 토벌대의 보복 학살 공포에 떨어야 했다. 1949년 1월 24일, 외도리 입구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보복 학살이 자행된 다음 더욱 더 하귀마을은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49년 1월 29일 경에, 하귀 지서가 설치되었다.⁸⁹⁾ 하귀 초대 지서장과 일반 경찰은 하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던 구업 출신들과 악명 높은 서북청년회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하귀마을 사람들은 무장대가 공격하여 우익이 피해를 보면 반드시 마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귀지서를 마을 내에 만들었다. 애초에 무장대의 접근을 막고 산사람들과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과의 무관함을 보여줌으로써 생존을 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국 초토화 작전에 의한 토벌이 강행되면서 마을에 남아있던 하귀 사람들이 토벌대 쪽으로 기울고 무장대와의 유대 관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토화 작전 시기에 자행되었던 학살은 가해의 주체가 토벌대이든, 무장대이든, 모두가 보복 학살의 양상을 띠었다. 4·3 시기 희생된 하귀마을의 10세 이하와 61세 이상 희생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63% 정도가 초토화시기에 희생되었다.

88) 고순호(1926년생, 하귀2리, 2005·10.12. 채록) 증언(『다시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58, 60-61쪽).

89) 고창선 증언(1934년생, 하귀2리, 2016. 11.15. 인터뷰).

4. 예비검속과 마을 주민 학살

1) 6.25 전쟁 당시 상황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⁹⁰⁾과 반정부협약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검속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지역에서도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처형되었다.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첫알름, 산지항, 서귀포 앞 바다, 정뜨르 비행장 등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다.⁹¹⁾

또한 6·25전쟁 직후 4·3과 관련하여 육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제주출신 형무소 재소자들이 희생되었다. 당시 육지 형무소에는 4·3관련하여 25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⁹²⁾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7월 8일에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7월 16일에는 제주 주정공장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신병 양성에 나섰다. 8월 3일 중고생으로 조직된 학도돌격대가 결성되었다. 이들을 비롯한 제주도 청년들 3000명이 해병 3·4기로 자원입대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1951년 3월 21일 기존의 대구 제2훈련소와 부산 제3훈련소를 제주의 제5훈련소와 통합하여 육군 제1훈련소를 대정읍 상모리에 설치하였다.⁹³⁾

90)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개월 후인 1949년 6월 5일, 국민보도연맹이 서울에서 창설되고 1949년 11월까지 각 지역 도 본부가 결성되었고, 12월까지 각 시·군지부가 결성되었다. 제주도 보도연맹도 1949년 11월 말에는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위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거 인민위원회 간부, 3·1사건 관련자, 4·3사건 관련 재판관 받았거나 수행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동청년단 위원장이나 마을 구장 등 군·경에 우호적인 사람들까지 과거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종달리에서는 젊은이는 거의 예외없이 가입 대상이 되었다. 남원면 의귀리 김계수는 산에 피난했다가 귀순하여 서귀포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들면 4·3사건으로 중산간마을 주민들 혐의가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여 흔쾌히 가입하였다(『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 421-425쪽).

91) 경찰 공문에 1950년 8월17일 당시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자의 수는 1120명이었다(박찬식, 『제주 4·3 바로 알기』, 제주4·3평화재단, 2017, 34쪽).

92) 형무소에 수감 중이다가 생존한 사람은 대부분 마포·인천 형무소 재소자이거나 전쟁 전에 석방된 경우였다. 나머지 전쟁 중에 수감되었던 재소자들은 부산형무소 생존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4·3연구소, 『4·3과 역사』, 각, 2001, 46쪽).

93) 『제주4·3 바로 알기』, 37쪽.

6·25 전쟁 당시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힌 제주사람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빨갱이 낙인을 지우기 위하여 군대 지원을 많이 했다.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하여 생존을 꾀했던 제주청년은 1만 여 명에 달했다.⁹⁴⁾ 하귀 젊은이들도 학살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6·25 전쟁터로 달려갔다.⁹⁵⁾

2) 정뜨르 비행장과 산지항 앞바다에서의 학살

1942년에 만들어진 정뜨르 비행장은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자 말고도 여러 곳에서 실려와 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대표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이 1972년도부터 시작되어 동서 활주로가 도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학살터들은 시멘트로 감추어지고 일부의 유해는 공사 중에 유실되거나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었다.

제주 4·3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2002년에 북부예비검속자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2005년 용담 레포츠 공원내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레포츠 공원이 당시 예비검속자들의 제주비행장 암매장 추정지와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제주4·3연구소와 제주대학교가 함께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옛 정뜨르 비행장 4·3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다. '묵은물래물', '새물래물', '어영' 등 당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증언을 토대로 학살·암매장 지점을 찾아내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 추진된 유해 발굴 작업에서는 대정읍 경찰서 관내와 서귀포 경찰서 내 예비검속자 유해들 일부만 발굴되었을 뿐, 제주경찰서 관할 북부예비검속자들의 유해는 발굴되지 않았다.

당시 제주경찰서는 관할 지역인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옛 산지주정공장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그 후 7월 16일과 8월4일에 구금되었던 500여 명을 배에 태워 먼 바다로 나가 수장했고, 8월 19일과 20일에도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수 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 당시 하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귀지서에 구금되었다가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어 1950

94) 앞의 책, 37쪽.

95) 2016년 11월 22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10살에 4·3을 경험했던 하귀1리 배광시 어르신은 당시 하귀 1구에서만 40여 명이 군에 입대했다고 하였다.

년 7월 16일과 8월 4일, 산지항 앞바다에서 수장되었고, 8월 19일과 20일에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

2015년 현재, 제주시 용담 3동 레포츠 공원 내에는 하귀마을 예비검속희생자 7기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그 7기 중에 김공남은 예비검속희생자가 아니고 1949년 10월 2일에 정뜨르 비행장에서 사형된 희생자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조사 결과 유족의 신고 오류로 인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김공남은 4·3공원 각명비에 1949년 10월 2일에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귀마을 6기의 예비검속희생자들의 나이는 20~30대이고 초등교사, 민보단장,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다.⁹⁶⁾

한편 하귀마을에서 육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52명이다.⁹⁷⁾ 그 중 6.25 전쟁 전에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1948년 12월에 1년 형을 받은 사람들로, 7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 7명에 속하는 강제철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예비검속되어 산지항(제주항) 앞 바다에서 수장되었다. 하귀마을의 4·3관련 수형자는 대부분 6.25전쟁 후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현재,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52명 중 37명 정도이다.⁹⁸⁾

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날 경찰에 의해 어머니는 하귀 지서에 잡혀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나는 먼 밭치에서 경찰들이 어머니를 구타하면서 아버지의 소재를 추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제주읍내 공장에 다니면서 무근성에 방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으나,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어머니를 데려간 경찰에 의해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끌려 갔습니다. 1구서(제주경찰서)에 끌려간 후 아버지는 그 해 7월 16일 밤에 수백 명과 같이 불려나가서는 알몸으로 결박된 채 산지항에서 배에 실려 먼 바다로 나가 수장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3~4일 후인 8월 19일 밤에는 어머니마저 수백 명과 같이 불려나가 정뜨르 비행장에서 집단학살 되어 암매장 되었습니다."⁹⁹⁾

96) 신위가 모셔진 희생자는 박지석(남, 22, 농업), 김공남(남, 28), 조재두(남, 24, 초등교사), 강제철(남, 35, 민보단장), 진옥순(여, 32, 농업), 김용운(남, 20, 초등교사), 양기순(남, 22, 농업) 등이다(제주북부 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한국전쟁시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 언혼 합동위령제』, 2015, 6·55쪽); 『다시 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135쪽 증언 자료에서 예비검속 희생자로 나오는 하귀공립국민학교 교사였던 김용철은 김용운과 같은 인물이다.

97)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 연구소, 『4·3과 역사』 창간호, 각, 2001, 50-51쪽.

98) 재판 기록에 나오는 이름과 4·3위원회에 신고할 때의 이름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서 영모원 조성 과정에서 확보한 희생자 자료를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한 결과를 반영한 분석 결과이다.

99) 증언자 강창옥(4·3당시 애월면 하귀리 거주) 아버지 강제철은 하귀리 민보단장이었으나 외도지서 장작사건으로 검속되어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직후 다시 예비검

①의 증언 내용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된 하귀사람들이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되고 산지항 먼 앞 바다에서 수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희생자 강제철은 토벌대와 같은 대열에서 4·3을 경험했던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토벌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었다. 여기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제주민은 토벌의 대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하귀는 사회주의 항일운동가 중심의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컸던 마을이었다. 도 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간부였던 김용해가 마을민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면 일제강점기 구장을 지냈으면서도 마을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회주의자 양군옥과 고창옥이 마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하귀야학회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강문일과 박영순이 하귀중학원의 교사였고, 하귀야학회사건에 같이 연루되었던 김홍규 역시 애월면 민청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하귀마을 인민위원회의 자치활동과 교육 활동은 활발했다. 하귀마을의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과 소비조합을 통한 필수품 공급 그리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을 염원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하귀중학원이 있었다.

3·1 사건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이미 하귀마을은 1947년에 시행된 과도입법의 원 재선거에 동참하지 않아, 친미반공세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미군정의 눈엣 가시가 되었다. 그 후에도 하귀마을은 하귀중학원의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1947년 3·1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날 행해진 발포 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3·10 민관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3·1 사건과 3·10 민관 총파업에 대한 탄압이 행해지면서 마을을 주도했거나 영향을 주었던 고창옥, 양군옥, 김용해, 배두봉, 김용관 등이 검거되었다. 이때부터 하귀마을과 미군정의 대립 각도가 심화되었다. 결국, 1948년 5·10 남한 단독 총선거에 하귀마을은 투표 거부로 미군정에 대항하였다. 5·10 총선거 며칠 전부터 많은 하귀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귀마을의 5·10 총선거 거부 사실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친일과 척결 등을 주장하며 일어났던, 4·3 무장봉기에 대한 동조 기류가 하귀마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하귀마을의 저항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속되어 산지항 먼 앞 바다에 수장되었다. 어머니 역시 검속되어 정뜨르 비행장에서 집단 학살되었다 ([오승국의 4·3 유적지를 찾아서], 『한라일보』, 2008.11.18).

하귀마을은 사회주의 항일운동의 전통을 지닌 마을이었다. 해방 후 사회주의 항일 운동가가 주도하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 정의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친일파의 고용, 식량정책의 실패, 미군정 관리의 부패, 그리고 서북청년회와 같은 반공 단체를 앞세운 야만의 반공 정책,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등을 강행하였다. 해방 후 평화·공존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던 하귀마을의 자치활동과 자주적인 통일 조국 건설 활동이 미군정에 의해 저지되면서 하귀마을은 저항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저항으로 미군정을 비롯한 공권력에 의해 하귀마을은 빨갱이 마을로 낙인이 찍힌 채 학살의 공간이 되었다.

<표 3> 하귀마을 4.3 희생자 통계표

구분	10세 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연령별	9 (2.81%)	73 (22.81%)	139 (43.40%)	40 (12.50%)	25 (7.81%)	16 (5.00%)	18 (5.62%)	320
성별	남	60 (82.19%)	123 (88.49%)	31 (77.50%)	20 (80.00%)	10 (62.5%)	14 (77.78%)	264 (82.50%)
	여	3 (33.33%)	13 (17.81%)	16 (11.51%)	9 (22.50%)	5 (20.00%)	6 (37.5%)	56 (17.50%)
시기별	47.3.1~ 48. 9	76 (9.59%)	12 (8.63%)	4 (10.00%)	5 (20.00%)	0 (%)	2 (11.11%)	31 (9.69%)
	초 토 화 시기 (48.10~ 49.3.1)	38 (52.06%)	74 (53.24%)	22 (55.00%)	18 (72.00%)	13 (81.25%)	12 (66.67%)	182 (56.88%)
	49.3.2 이후	22 (30.14%)	46 (33.09%)	12 (30.00%)	2 (8.00%)	2 (12.50%)	0 (%)	85 (26.56%)
	미확인	6 (8.22%)	7 (5.04%)	2 (5.00%)	0 (%)	1 (6.25%)	4 (22.22%)	22 (6.88%)
행방불명자 통계								
구분	10세 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연령별	1 (0.98%)	32 (31.37%)	51 (50.00%)	12 (11.76%)	5 (4.90%)	1 (0.98%)	0 (%)	102/320 (31.88%)

※ 시기별 희생자 통계에는 희생 날짜와 나이 및 행방불명자는 4.3위원회의 희생자 기록을 우선하였다.

위 <표 3>을 중심으로 하귀마을의 인명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4·3 시기에 전체 하귀마을 사람의 11%(320/2800)가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희생자 중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들이 8.43%(27/320) 정도 희생되었으며, 여성 희생자가 17.50%(56/3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 상관 없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던 초토화 작전 시기인 1948년 10월에서 1949년 3월 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전체 희생자의 56.88%(182/320) 정도가 희생되었는데 희생 시기 미확인 희생자를 제외하여 분석해보면 초토화 작전 시기 희생자는 전체 희생자의 61%를 넘는다. 61세 이상의 희생자와 10세 이하의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초토화시기와 다른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63%(17/27) 정도가 초토화 작전시기에 희생되었다. 51세 이상의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73.52%(25 /34) 정도가 이 시기에 희생되었다.¹⁰⁰⁾ 초토화 작전 강행 전후인 1948년 10월부터 그 이후 희생자가 전체 희생자의 83%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희생 시기 미확인 희생자를 제외하면 90% 이상이 이 시기에 희생되었다. 이러한 인명피해 상황을 가지고 조명했을 때 하귀마을의 4·3은 국가권력의 무차별 대량학살에 의한 마을민의 수난사였음을 보여준다. 희생자 나이층을 가지고 살펴볼 때, 항쟁의 중심 나이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의 희생이 43%를 넘고 있고 20~30대의 희생이 55%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귀마을이 저항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전체 희생의 31.88% 정도가 행방불명되었고 20대, 10대, 3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⁰¹⁾ 이것은 희생자 비율순과 일치한다. 1948년 10월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기 전 시기 행불자는 6명으로 전체 행불자의 5.88%정도이다.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면서 행불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것은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면서 제주사회가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귀 행방불명자(이하 행불자)의 93% 이상이 10대~30대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어떠한 사실을 담고 있을까?

100)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4년 현재, 4·3위원회에서 확정된 명단과 영모원 조성 과정에서 작성된 희생자 명단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320명의 하귀마을 희생자 명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다 (「부표」).

101) 4·3 위원회에서 행불자로 인정한 희생자를 가지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320명의 하귀마을 희생자 명부에서 4·3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60명)을 고려한다면 행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 전체적으로 4·3 시기 행불자 대부분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형되었던 사람들이었다. 하귀마을 행불자의 60%(62명/102)이상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반인 신분에서 실종되었거나 1948년, 1949년 군법회의에 의해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던 사람들로 파악된다.¹⁰²⁾ 그들의 나이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일반인 신분에서 행불자가 된 사람들이 예비검속자가 되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하귀마을은 정부의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을 가능성, 달리 말한다면 하귀가 당시 국가 권력에 저항적이었던 마을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02) 사망으로 희생자 처리된 수형인과 실질적인 행불자 중 일부가 수형인 희생자로 분류된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당시 국가 권력에 저항했다고 여겨지는 희생자의 비율은 더욱 크리라 여겨진다.

IV. 하귀마을의 4·3 치유 과정

1. 4·3 이후 마을 공동체의 해체

하귀마을은 20대에서 30대까지의 희생자 비율이 55% 이상으로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의 것보다 아주 높다. 젊은 남자들이 사라진 공간에서 늙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대신 죽었고 아내인 여성들은 빨갱이를 양산한다는, 혹은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학살되었다.¹⁰³⁾

젊은이들이 사라진 하귀마을은 활기가 사라지고 연좌제에 시달렸다. 겨우 생존한 사람들은 한과 분노를 가슴에 쌓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¹⁰⁴⁾ 특히 여성들은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권력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했던 치욕스런 기억들을 가슴에 새기고 죽어버린 남편, 오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지켜내야 했다. 그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눈물이 말라버린 세월을 살아야만 했다.

다음은 4·3 시기에 임신한 동서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성의 증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¹⁰⁵⁾

㉔ 안씨 집안(시집)의 비극은 시동생 홍씨로부터 비롯되었다. 광복과 함께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시동생 홍씨는 1948년 4·3이 터지면서 당 활동에 간여하고 있었던 듯 무장대를 따라 한라산에 들어갔다. 홍씨의 입산 후 그 해 12월 임신 중이던 홍씨의 처 즉 안인순씨의 동서가 친정인 애월읍 하귀리로 해산하러 가면서 사건이 터졌다. 보릿짚을 깔아놓

103) 김성례, 앞의 책, 348쪽.

104) 하귀리 서쪽 끝, 학원동(4·3당시 개수동)을 거쳐 수산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 지점 도로변에 세워진 學生姜公斗湖追慕碑는 반공군사독재체제가 극에 달했던 1973년에 세워졌다. 4·3 당시 19세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행방불명된 강두호 씨를 위령하기 위한 비였다. 비문에는 강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서기 1948년 11월 경 본도 4·3사건 당시 실종’이라고 쓰여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실종되었음에도 반공국가의 공포 속에 행방불명의 단서가 되는 사실마저 기록할 수 없었다고 본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년, 583쪽).

105) 증언 당시(1998), 75세로 하귀리에 거주, 학살된 여성은 21살의 문정선으로 증언자 안인순과 동서 지간이었다. 안인순의 증언은 『시사저널』 1998. 4. 9, 「탐라섬’ 사월의 비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 실렸다.

은 방에서 출산 진통을 시작하던 동서에게 이른바 하귀특공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특공대란 4·3 이후 경찰을 보조하기 위해 마을별로 구성된 청년조직을 말한다. 특공대 소속 2명은 "입산자 가족은 중자를 말려야 한다"면서 마을 뒤편 뱅디(너른 들판)로 문씨를 끌고 갔다. 소식을 듣고 안씨가 달려갔을 때 동서는 가슴 여덟 군데를 포함해 모두 열세 군데를 철창에 찔려 숨을 거둔 뒤였다. 하문에는 나오다 만 아기가 걸려 있었다. 안씨는 남들 눈이 무서워 대충 흙만 덮어 가매장을 했다.

학살의 광풍이 잠잠해진 2년 뒤 안씨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꿈에 자꾸 동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씨의 조카의 몸에 실린 영혼은 "배를 갈라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아기가 다리 사이에 걸려 있어 걸을 수 없고 저승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혼은 또 생전에 '오라방'이라고 부르며 다르던 사람이 자기를 죽였다고 몸부림쳤다. 굿을 치른 뒤 안씨는 동서의 시신을 지금의 무덤 자리로 옮겨 제대로 수습해주었다. 핏덩이 아기도 시신에서 분리하여 곁에 묻어 주었다.

㉔의 증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학살당한 여성의 남편 홍씨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층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남로당 당원이었다. 4·3봉기 이후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에 합류하였다. 무장대가 된 아들 때문에 증언자의 시집은 많은 희생이 강요되었다.

둘째, 희생자가 죽은 시기는 초토화 작전이 극심했던 12월이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인 하귀에 왔다가 하귀 특공대 소속의 동네 오빠에게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셋째, 증언자의 잠재의식 속에는 동서의 비참했던 죽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채무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증언자의 죽은 동서가 꿈속에 나타나고 자신의 조카에게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넷째, 4·3 시기 특공대로 편성된 일부의 젊은이들이 토벌대의 충성스런 존재가 되어 생존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입산자와 가족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위의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4·3 광풍으로 분노와 한 그리고 갈등의 구조가 형성되어 마을이 더 이상 서로를 어루만지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생존자들은 채무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4·3으로 하귀는 빨갱이 마을이 되어 버렸다. 1953년, 하귀 사람들은 4·3

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귀1구는 동귀리, 2구는 귀일리로 마을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연좌제 등으로 권력의 탄압을 음으로 양으로 받으면서 하귀마을은 정체성이 사라지고 쫓기는 마을이 되어갔다. 마을 개발과 기관 유치 등에서 대립 각도를 유지하고 마을민끼리도 서로를 껴안지 못하였고, 분노와 한을 가슴에 쌓으며 各自圖生의 길을 찾기에 바빴다. 그 속에서 하귀마을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그러나 국가의 폭력으로 고통을 애기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도도히 흐르기 시작했던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제주 4·3 폭력의 경험을 말하게 되었다. 권력의 언어로 독점되었던 4·3의 기억이 민중에 의해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마을주민들의 4·3 증언과 치유의 시작

하귀마을의 4·3 치유는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언어로 마을의 4·3을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 4·3을 경험했던 하귀마을 사람들의 증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1947년 3·1절 시위에 참여했거나 민청, 민애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미군정의 실정이 저항을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3·1절 시위의 경험이 없었던 당시 어렸던 생존자들은 왜 저항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보다는 무장대의 저항과 토벌대의 응징으로 강행된 학살의 기억만이 각인되어 있다. 하귀마을의 또 다른 4·3의 경험자들, 여성 경험자들의 4·3은 무장대의 저항과 토벌대의 응징이 반복되면서 강행된 학살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거기에 여성 경험자들은 남자가 죽어버린 공간에서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했던 4·3 이후의 고통스런 시간들 역시 4·3의 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이 하귀마을을 주도했기 때문에 4·3의 중심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자랑스런 마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모원이 하귀마을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귀인들의 거룩한 혼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⁶⁾

구체적으로 다음 증언 내용들을 분석하여 하귀마을에서 일어난 4·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조명해보자

①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완전 빨갱이예요. 사회 정세가 그랬어요. 워, 이건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허던데 우리나라 전체가 경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런 상황 속에 …… ‘민청’, 그때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같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민청 일을 한 거예요. 그니까 사회가 많이 풀리는 대로 거기로 끌려간 거죠. 그때 내가 우리 마을 민청위원장을 허연 감방도 갔다 오고 했주만, 따로 사상 같은 걸 공부 한 건 아니예요. 내가 지금 목관아지에 있던 제주경찰서 6호 감방에 2개월 간 있었어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디 1947년 3·1사건, 3·1운동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 민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쪽으로 집결허는디, 우리 에월면은 광양국민학교에 완전 집결을 했어요, 해서 3월 1일 북교에 가서 기념행사 치르곡 만세 부르고 허연 돌아왔죠. 겐디 나중에 나중에 잘 아실거주만 그날 발포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 이제 경찰에선 자기네가 잘못된 것은 인정허지 않고 집회에 가담헌 사름덜을 무조건 색출허여 유치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 내가 민청에 드렁가곡 헐 때는 다 그렇게 허게 마련이었어요. 마을에 그 김홍률¹⁰⁷⁾ 이 같은 사름덜…… 홍률이가 압전하고 중학교 교사까지 허는데 그 말을 누가 안 듣겠어요? 다 다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제주도 사정을 감안허영 그냥 빨갱이 새끼덜이라고 욕만하지 말고 그때 세상은 그때대로 잘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간 생략, 나중에 제주도 어땠어요? 밤에는 산에서 사름덜이 내려오지, 그러믄 어떻게야 했나요? 당연히 그 사름덜에게 협조해야죠. 아니믄 반동분자로 걸리는 건데요. 그럼 낮에는 경찰 세상이 난 당연히 경찰에 협조허고……¹⁰⁸⁾

② 우리 마을은 독립운동가가 많아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린 아직 남로당에 들어갈 나이는 아니었고 주로 학생 민애청에 가입했지요. 농업학교에 다니는 선배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8시간 노동’ ‘집회·결사의 자유’ ‘공평세상’ ‘남로당 지지’ 등의 교육내용이 생각납니다. 1947년 여름철에 제주경찰서에 끌려갔다 온 후로는 마을 전경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빌레택동산’에 올라 빗개를 서기도 했습니다. 흰 광목을 매단 왕대로 신호를 보내 경찰의 움직임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5·10선거 때는 노인을 제외하곤 모두가 산으로 올랐지요. 이승만이 강행하려던 단독선거는 조국을 분단시키는 것이니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당시 남로당 뿐 아니라 김구 선생

106) 2016년 11월에 하귀발전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로서 영모원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고 창선(11월15일), 배광시(11월22일) 어르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결론이다.
 107) 에월면 구업리출신으로 하귀중학원 교원, 1948년에 2차례에 걸쳐 ‘포고 제2호 및 범령 제19호 제4조’ 위반 혐의로 검속되었으나 그 후 9연대에 입대해 복무하였다(앞의 책 192쪽).
 108) 박창호(1922년생, 4·3당시는 중업, 현재는 하귀 거주, 2005. 5. 2차례 체록) 증언(앞의 책 176, 180, 181, 185, 188쪽).

도 단독선거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5·10선거 직후 토벌이 심해지자 너도나도 은신처를 만들어 여차하면 숨었습니다.¹⁰⁹⁾

㉓ 제주4·3 사건의 피해 원인은 폭도들에게도 있었지만 첫째 경찰에 책임이 있었어, 조금 허튼 그저 사살해 부렸주게…… 그 다음은 9연대(주; 증언자는 당시 군인들을 초기 모슬포 9연대로 통치하고 있다)가 들어왔지. 9연대도 그렇게 학살했다고, 무조건 심영 가서 지금도 시체도 못 찾는 사람이 많아……¹¹⁰⁾

㉔ 당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신탁통치 반대를 했다고 봅니다. 또 반쪽 선거 반대도 그 당시엔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에게 "왜 겁니까" 하니까 이러이러하다고……하는데, 당시에 어린 마음에도 통일된 선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웃어른들이야…… 투표소도 설치하지 못하고……¹¹¹⁾

㉕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곤란한 사람들 평등하게 살려고 노력한 데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 때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¹¹²⁾

증언 자료 ①의 증언 내용을 보면 해방 직후에는 사회주의가 해방정국을 주도했고 사상좌익단체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며 3.1절 사건을 3.1운동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저항의 지도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사실과 미군정 경찰 등의 탄압이 저항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4·3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난 후, 어느 시점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무장대와 토벌대로 부터 이중적인 고통을 당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증언 자료 ㉓의 증언자 강태중은 4·3 당시 단국중학교 2학년이었다. 일제강점기 하귀마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하귀 야학회 사건'으로 8개월 형을 살았던 박영순이 그의 매형이다.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직후 하귀마을은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컸고 공평한 사회와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귀마을은 제주 4·3봉기를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한 것

109) 강태중(99년 68, 에월읍 하귀2리) 증언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1999.0 3·12).

110) 4·3연구소, 『이제사 말할 수 있다』, 2권, 한울, 1989, 162쪽.

111) 고창선 (2000년 66, 하귀2리) 증언 (제주 MBC, 『4·3 증언 - 나는 말한다』 56회, 『에월읍 하귀리 편』, 2000.10.28. 방영).

112) 김순자 (1941년생, 도쿄 거주, 4·3당시 8살로 제주 거주) 증언 (제주 4·3사건지원사업소·제주 4·3 연구소 엮음, 『제일제주인 4·3 증언 채록집』, 각, 2003, 48쪽).

으로 이해했으며, 그 선상에서 하귀마을이 5·10 총선거를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10 총선거 이후 마을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증언 자료 ㉒에서는 4·3의 극심한 피해는 경찰이나 군인 등 과잉 진압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언 자료 ㉓의 내용에서는 5·10 단독 선거는 반역사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고 신탁통치 반대가 마을 분위기를 띄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통일 조국 건설이 민족의 염원이자 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주의 세력들이 1946년 1월 초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신탁통치 반대 운동 세력과 대립 각도를 구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했을 때 하귀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반탁에 머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증언 ㉔의 증언자는 8살에 4·3을 경험했던 인물로 당시 하귀 출신 대표적인 사회주의 지도자 김용해의 딸이다. 어린 나이에 4·3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학살의 경험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부모님이 저항하였고 아버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4·3 경험자의 가정환경이나 교육 정도 등이 4·3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장에서 살펴본 ㉕, ㉖, ㉗ 증언의 내용들과 ‘제Ⅲ장 하귀마을의 4·3 경험’에서 기술된 ㉘~㉙ 증언 자료를 종합하여 조명한다면, 하귀마을이 경험한 4·3은 수난사로서의 기억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㉚, ㉛, ㉜, ㉝의 증언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전하기 위하여, 혹은 자주적인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항쟁사로서의 기억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¹³⁾

3. 英慕園의 조성과 마을공동체의 복원

113) 예시로 제시하지 못한 4·3 경험자들의 증언(제주도와 4·3연구소가 공동 작업으로 채록한 1000인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반공이 참이고 진실’이라는 인식의 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시대를 잘못 만나 경험했던 ‘마을민의 수난사’로 많이 각인되어 있다.

영모원은 4·3 시기 군경 희생자와 4·3 희생자를 같이 모심으로써 4·3 이후 해체된 하귀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마을 사람 스스로가 조성한 추모, 기념, 공간이다.

하귀는 ‘빨갱이 마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체념의 시간들을 살아야 했다. 이 름을 바꾸고 반공독재 체제 속에서 고통을 몸속에 가둔 채 살아온 40여년의 시간들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몸속에 가두어 놓은 고통을 해방시키려는 용기가 생성되어 마을주민들의 언어로 4·3을 말하기 시작 하였다. 타지로 나갔던 사람들, 마을내의 사람들이 하귀 혼을 살려 내어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의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을 얻었다. 1990년 마을 통합 발전을 위해 하귀발전협의회를 조직하면서 마침내 1993년, 마을은 하귀리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2년 뒤, 북제주군 조례로 동귀리는 하귀1리, 귀일리는 하귀 2리로 마을 이름이 환원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후 하귀발전협의회 창립 10 주년이 되는 2000년에 ‘하귀혼살리기’ 마을 축제를 개최, ‘지신밟기’ 등을 통해 위령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자금 3000만원을 모았다. 마을 통합 10주년을 맞이하 는 2003년에 마을민의 추모공간인 ‘영모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¹¹⁴⁾

영모원 조성은 자랑스런 하귀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각시켜서 다시 하귀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의지가 마을의 공동체를 회 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4·3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진실과 만나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마을 사람들은 4·3 희생자와 함께 일제시기 항일운동가와 6.25 전쟁, 월남 전쟁 때 죽 은 호국영령들을 한 곳에 모시기로 계획을 세웠다. 2000년 1월, 하귀혼 살리기 걸궁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3여 년 동안 1억 5천여 만 원의 성금을 모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파군봉 부근 2백 여 평 부지에 위령비 와 제단을 마련하여 2003년 5월 27일 영모원 제막식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강점

114) 배광시 하귀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하귀는 고려시대 항몽격전지였고 일제 때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해방 후에는 마을 이름이 바뀔 정도로 4·3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오랜 시간 ‘진저리 나도록’ 사람들을 괴롭혔다. 한국전쟁 이 후 예비검속까지 계속 이어졌으니 하귀 사람들의 수난은 이 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럼에도 우리 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영영 묻혀버 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다”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왜곡돼왔던 역사를 재정립하고 하귀 1, 2리 주 민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제주대 미디어』, 2003.6.4.).

기에서 해방 후 4·3을 거쳐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희생된 넋을 위무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세워진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관에서 참석한 귀빈은 애월읍장 정도였다. 관의 지원 없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낸 자존의 에너지가 모인 결과였다.

영모원은 4·3 시기에 죽어간 모든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꾀하고자 했던 하귀마을 사람들의 용기와 지혜의 결과이다. 4·3 희생자의 영령을 순국지사 및 호국영령과 함께 추모함으로써 하귀리 사람들 스스로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공존의 길을 연 것이다. 이것은 하귀마을이 4·3 트라우마 치유 과정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¹¹⁵⁾

영모원 조성 이후 마을은 확연하게 화합분위기로 바뀌었다.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의 자치조직을 통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음력 1월 3일에는 전 주민이 참석하여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은 자주 영모원을 찾아 참배를 한다.¹¹⁶⁾

영모원은 마을화합의 상징입니다.

영모원은 하귀리의 통합과 화합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희생된 우리 마을의 4·3영령과, 순국 애국지사, 그리고 호국영령의 신위가 한 곳에 모신 것이 그 이유지요. 특히 4·3영령이 순국, 호국지사와 나란히 있음으로 해서 죽은 자의 평등한 해원에 동의해준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나보다 더 열심히 뛰어 준 당시 하귀발전협의회 배광시 회장님께도 두 고두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형님은 당시 23세였는데 외도에 주둔하던 9연대 군인들이 장작 베러 간다며 잡아간 후 제주시로 이송되었다가 대구형무소에 수용 중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때 형수 앞으로 보내온 엽서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¹¹⁷⁾

하귀 영모원에는 각각 다른 정체성을 지닌 3종류의 비가 있다. 항일운동가를 기리는 ‘위국절사영현비’, 국가에 의해 동원된 전쟁에서 죽은 자를 기리는 ‘호국영령충의비’, 4·3 희생자를 기리는 ‘4·3 희생자위령비’가 그것이다. 영모원을 조성

115) 영모원 조성 시 3,100만 원을 기탁한 서울의 경보 전기 사장 김용현은 무장대의 기습으로 부모가 희생된 인물이다. 그의 영모원 조성 시 거액의 성금 기탁은 하귀마을 영모원의 역사적 의의를 보여 준다.

116) 하귀발전협의회, 『영모원 관련 서류철』, 2000-2016.

117) 고창선(07년 73, 하귀2리 학원동) 증언(4·3당시 14살의 나이로 형님과 오촌당숙 일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영모원 조성당시 1리의 배광시와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오승국의 4·3유적지를 찾아서』, 『한라일보』 2007.6.19.)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하귀 혼을 살려서 하귀를 발전시키자’였다. 과거 항일운동의 기억에서 하귀 혼을 살려내어 나아가는 평화·공존의 길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마을의 의지가 국가 권력의 부름을 받아 죽어가야 했던 호국영령과 국가 권력의 횡포에 희생되었던 제주 4·3 원혼들을 함께 추모하는 공간인 영모원을 만드는 역사를 썼다.

보다 나은 ‘4·3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하여 영모원 속에 있는 ‘4·3 희생자 위령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3 희생자 위령비에는 304(幼兒不記 포함)기의 靈位가 모셔져 있다. 304명의 희생자 중 56명이 상귀, 수산, 금덕, 외도, 이호 등 본적이 하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셔져 있다. 118) 이러한 현상은 하귀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유족들이 기금을 내고 함께 참여하면서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귀, 수산, 금덕 등에서 하귀로 소개되었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함께 추모하려는 하귀마을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영모원에 모셔진 다른 지역 희생자 대부분은 하귀마을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었다.119) 또 다른 이유로는 본적과 실질 거주지가 달랐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여도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이사 시 전입·전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희생자로는 하귀와 생활권이 가장 가까운 상귀 출신이 많다.

제주 4·3 때 많은 제주사람들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걸쳐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군법회의에서 수형자가 되었다.120) 그 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부는 행방불명되고 대부분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죽었다. 그때 수형되었던 하귀 사람 중 48% 조금 넘는 사람만이 영모원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121) 사형 선

118) 영모원에는 4·3희생자들의 영위가 4·3희생자 위령비에 304기, 호국영령충의비에 12기의 영위가 각각 모셔져 있다.

119) 2017년 4월14일, 하귀발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모원 구성에 중심역할을 했던 배광시(1938년생) 어르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확인.

120) 『제주4·3 진상보고서』,448-467쪽을 참고하여 정리한다면, 제주4·3 때 군법회의라 함은 제주 4·3사건 때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열렸던 것처럼 자료에 기재된 군법회의를 가리킨다. 두 차례의 군법 회의에서 제주도민들은 사형, 무기징역, 20년,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1948년 12월에 열린 제1차 군법회의에 판결을 받은 전체 수형인 871명 가운데 사형이 4.3%, 무기징역이 7.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장대가 궤멸되어 사건이 거의 종결되었다고 여겨지던 때에 열린 1949년 6~7월의 제 2차 군법회의에서는 전체 수형인 1659명 가운데 사형이 20.8%, 무기 징역이 14.8%을 차지해 제2차 군법회의 때보다 더욱 가혹한 피해를 받았다.

121) 『영모원 관련 서류철』에 있는 4·3 관련 하귀 사람 수형자는 52명이다. 그 중 27명의 이름이 영모

고를 받았던 김원갑이나 김서옥 등은 이름이 있는데 20년 형을 받았던 김종호, 7년 형을 받았던 장재서 등은 없다.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았을 때 후손의 의지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3 희생자 위령비에는 무장대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없다.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 12명은 유족들의 주장으로 제주4·3의 희생자들의 공간이 아닌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국영령 충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무장대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겨레와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죽은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러한 4·3 희생자에 대한 구별이 마을의 평화·공존을 꿈꾸는 영모원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모원이 조성되는 과정의 문서를 살펴보면 2002년 2월에 작성된 희생자 기초 자료에는 희생자가 400명이 넘었다. 그러다가 2003년 초에는 4·3위령비에 들어갈 명단으로 329명과 충의비 12명으로 재정리되었다. 그런데 정작 영모원에는 4·3 희생자 위령비에 304명, 충의비에 12명만이 새겨져 있다. 명단이 축소된 이유를 정확하게 영모원 설립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자료철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영모원 설립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서도 역시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모원 조성 과정에서의 서류와 영모원 추진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고창선, 배광시 어르신들과의 인터뷰¹²²⁾ 및 기존 증언¹²³⁾에서 얻은 사실을 분석해 본 결과 희생자 명단 확정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작용하였으리라 추정하게 되었다.

첫째, 희생자 신고는 유족이나 유족이 아니라도 희생자의 사정을 아는 동네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영모원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둘째, 무장대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자는 제외한다.

셋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14일, 제주 4·3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

원 4·3희생자 위령비에 없다.

122) 2016.11월, 영모원 조성과정에서 하귀발전위원회 추진 위원이었던 고창선(1934년생, 하귀2리), 배광시(1938년생, 하귀1리) 어르신과의 인터뷰 진행(2016년 11월 15일에는 고창선 어르신과 하귀2리 사무소에서, 22일에는 배광시 어르신과 하귀1리 사무소에서).

123) 고택주(1930년생, 4·3당시 하귀1리 거주, 2004년 채록) 증언 (『다시 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36쪽).

불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제주4·3 평화공원의 위령제단에서와는 달리 영모원에서는 4·3 역사 공간에서 다양한 희생자들을 좀 더 포용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고자 했던 하귀마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영모원 4·3 위령비에 이름을 새기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하는 유족들의 움직임이 영모원 조성과정에서 작성되었던 희생자 명단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4·3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의 범위¹²⁴⁾가 유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¹²⁵⁾

한편 ‘4·3 희생자 위령비’와 ‘호국영령충의비’에 모셔진 하귀 사람들 중 일부가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위패가 없다. 또한, 위령 제단에 위패가 있는데 영모원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¹²⁶⁾ 이러한 균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영모원에는 있으나 4·3 평화공원제단에 없는 것은 4·3 희생자 기준에 어긋나거나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에 간혀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영모원에서는 보통 마을에서 불렀던 이름을 쓰고 평화공원 위령제단의 위패에는 호적에 적힌 이름을 썼기 때문에서 오는 균열을 생각할 수 있다.¹²⁷⁾ 한편, 평화공원 위령제단에는 있는데 영모원에 없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반공피해 의식¹²⁸⁾과 실재 이름과 호적 이름과의 불일치, 영모원에는 4·3시기 사망한 사람

124) 4·3특별법은 4·3위원회에서 희생자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심의·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6차 회의(2002년 1월 31일)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안’을 채택,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2002년 3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차 4·3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희생자의 범위는 제주4·3사건 희생자는 4·3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4·3위원회에서 4·3사건 희생자로 심사·결정된 자로 정하였다.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대상으로는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 자로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위원회백서-화해와 상생』, 2008, 148-150쪽)

125) 1948년 5월에 있었던 9연대 소속 41명 탈영병 중의 한 명인 하귀 사람 김하길은 영모원에 이름이 없다.

126) 2014년 5차에 걸친 4·3희생자로 확정된 하귀마을 희생자는 271명이다. 희생자 271명 중 영모원에는 46명의 이름이 없고, 영모원에 있는 303 (乳兒不記 제외)명 중 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에 없는 이름은 14명 정도이다.

127) 한 예로 영모원 4·3 희생자 위령비에는 ‘배두봉’이라 새겨져 있는데 4·3평화공원 위패에는 ‘배창아’로 기록되어 있다.

128) 2003년 5월, 영모원이 조성되는 시기는 아직 『4·3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시점으로 2001

과 행방불명된 사람만이 추모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乳兒不記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하기 위하여 영모원에 모실 희생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단과 2014년까지 4·3 위원회에서 인정한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확보한 희생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¹²⁹⁾ 분석 결과 10세 이하 61세 이상과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보다 약간 낮다. 그리고 21-30세 희생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1-20세까지이며 세 번째 희생자 나이층은 31-40으로 희생 나이층 순서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21세부터 30세까지 희생자 비율이 43.3%가 넘어 그 비율이 진상조사보고서보다 8% 정도 높다. 4·3 당시 하귀마을의 20대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귀마을이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대의 희생이 특히 많았다는 분석 결과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희생이 많아 하귀마을의 6.25 참전 용사 대부분이 18세에서 20세의 학도병이었다고 하는 증언¹³⁰⁾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체로 마을의 주요한 활동 나이층이라 볼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희생이 55%를 넘고 있다.

가해자별 분석은 영모원에 새겨진 희생자 기록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4.63%이고 토벌대에 의한 희생은 95%가 넘는다.¹³¹⁾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토벌대에 의해 죽은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다.¹³²⁾

년 4·3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하귀마을 사람들은 259명이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372쪽).

129) 영모원을 조성하면서 작성된 희생자 자료와 4·3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까지의 4·3 희생자 자료를 비교하여 확보한 희생자 32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결과 여자 희생자(56) 비율은 17.50%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10세 이하(9) 2.81%, 11-20세(73) 22.81%, 21-30세(139) 43.40%, 31-40세(40) 12.50%, 41-50세(25) 7.81%, 51-60세 (16) 5.00%, 61세 이상 (18) 5.62%이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2001년 5월30일 현재 최종 국내외지역 신고자 14,028명을 대상 분석 결과는 10세 이하 5.8%, 11-20 21.6%, 21-30 35.3%, 31-40 15%, 41-50 9.8%, 51-60 6.4%, 61세 이상 6.1%이고 여성희생자 비율은 21.3%(2985)이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369-370쪽).

130) 2016.11.22. 11세에 4·3을 경험했던 배광시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하귀1구인 경우 40여 명의 6·25 참전용사 중 30명 정도가 학도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1) 본적 기준으로 4·3희생자 위령비에 새겨진 하귀 사람은 247명으로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들과 호국영령 추혼비에 새겨진 4·3 희생자는 12명인데,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이다. 상귀, 수산은 하귀와 생활권이 비슷하여 희생 당시 주소가 본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통계는 연구 목적으로 영모원 조성 시 작성된 기록(희생 당시 주소)과 평화공원 각명비(본적지)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하귀마을 희생자 명부(「부표」)에 기초한 것임을 밝힌다.

132) '4·3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자 별 희생자 비율은, 토벌대 78.1%, 무장대 12.6%, 기타 0.3% 공란 9%인데,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토벌대 86.1%, 무장대 13.9%이다(『제주4·3진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희생자를 확정된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위의 하귀마을의 희생자 자료를 비교해보면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보다는 좀 더 마을의 4·3 희생자 진실과 가깝다.¹³³⁾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국가에 의해 작성된 후 좀 더 제주 4·3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이다. 거기다가 2006년에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무기, 사형을 받았던 4·3 관련 수형인도 2007년에 4·3 희생자로 인정하게 된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조사보고서』, 371쪽).

133) 2002년에서 2014년까지 5차에 걸친 심사에서 하귀는 271명이 희생자로 확정되었다.

2014년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분석 자료를 보면 가해자 별 희생자 비율은 토벌대 84.3%(12,000명), 무장대 12.3%(1,756명)이다. 여성 희생자 비율은 21.1%(2990)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 5.4%, 10대:17.31%(2464), 20대: 38.37%(5461), 30대:16.09%(2291), 40대: 9.71%(1383), 50대: 6.74%(959), 60대 이상: 6.3%이다(박찬식, 『제주4·3 바로알기』, 제주 4·3 평화재단, 2006, 40쪽).

V. 결 론

본 논문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마을의 공동체 복원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사 무대를 특정한 마을로 한정하여 제주 4·3을 미시적으로 조명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하귀마을의 4·3 경험·기억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귀는 고려시대에 형성된 귀일촌 동일지역으로서 2,000~2,200여 년 전부터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헌상으로도 약 1,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제주 4·3 당시 하귀리는 1구와 2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속칭 ‘군녕이’라 불린 하귀1구는 마을구조가 단순했지만, 하귀2구는 미수동(味水洞)·가문동(可文洞)·개수동(蓋水洞, 후에 학원동으로 개명)·답동(畓洞) 등의 자연마을들로 이루어진 큰 마을이었다. 하귀의 자연 마을들은 하귀2구의 개수동만이 산 쪽으로 약간 올라간 위치에 있었고 나머지 마을들은 모두 일주도로변이나 또는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항일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고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조국건설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다. 그 중심에 하귀중학원이 있었다. 3·1절 시위발포 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제주 4·3을 전후로 마을을 주도하던 30-40대 인물들 중 일부는 육지나 일본으로 피신했고 일부는 산으로 올랐다. 교사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 다수가 산으로 도피하여 무장대가 되었다. 5·10 총선거 때에는 하귀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거부하여 3~7일 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다. 결과 하귀마을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제주 4·3 때 일반적으로 일주도로변 마을은 중산간 마을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었다. 그런데, 중산간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하귀는 32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당시 하귀마을은 일제강점기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500호에 최소한 28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예측할 수 있다.¹³⁴⁾ 그렇다면 하귀마을의 11%가 넘는 사람들이 제주 4·3 역사 공간에서 희생되었던 것이다. 미수동 마을

134) 배광시(1938년 생, 2014년 11월22일) 어르신과의 인터뷰와 『이제사 말함수다』 2, 58쪽.

주민의 학살, 가문동 원벵피에서의 학살, 그리고 진수리에서의 학살만이 5월에 행해지고 대부분 학살은 초토화 시기인, 1948년 10월 말에서 1949년 3월까지 자행되었다. 초토화 시기 중에도 1948년 12월에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대부분 보복학살의 결과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옛 정뜨르 비행장(제주비행장)에서, 산지항(제주항) 앞 바다에서 죽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개수동(현재 학원동)의 피해가 컸다. 그리고 4·3 당시 하귀에는 강(姜,康), 고씨, 김씨, 정씨, 문씨, 장씨, 이씨, 배씨 등이 모여 살았는데, 강씨와 김씨 그리고 고씨 집안사람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

넷째, 제주 4·3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 연령의 남자들은 거의 죽어서 가문동을 제외한 대부분 마을에는 2~3명 정도만이 살아남았다는 증언은 하귀마을의 희생자 분석 결과 20~30대의 희생 비율이 55%가 넘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에서 하귀마을이 저항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다섯째, 제주 4·3 시기 주민을 대상으로 민보단과 특공대를 만들어 군경과 함께 토벌에 주민을 동원시키고 토벌대가 자신들이 쉽게 총살할 수도 있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창으로 잔인하게 찢러 죽이도록 하였다. 자신들의 학살극에 마을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의 분열을 꾀했던 것이다.

여섯째, 제주 4·3을 거치면서 하귀는 빨갱이 마을로 낙인이 찍혔고 마을공동체는 무너졌다. 빨갱이 마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은 동귀와 귀일로 마을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반공국가 체제 속에 억압은 지속되었고 마을주민끼리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일곱째, 하귀마을의 제주 4·3 생존자 중, 1947년 3·1 행사에 참가했다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 직후 사회주의 청년 조직인 민청이나 그 후신인 민애청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미군정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대부분은 산으로 피신, 무장대가 되거나 타 지역으로 피신하는데 일부는 국가 권력에 의지하여 삶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6.25 전쟁 때는 생존을 위해 군에 대부분 입대하였다. 또한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4·3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여덟째, 3·1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민청, 민애청 활동의 경험이

없었던 어린 나이로 제주 4·3을 경험했던 생존자들은 '제주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대립과정에서 자행된 학살의 공포에 대한 기억이 강하다. 그와 함께 하귀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항일운동가들이 많았다. 그들이 해방 정국을 주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저항에 동참하게 되고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홉째, 제주 4·3 시기에 가족이 토벌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거나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연좌제에 걸려 제주 4·3 이후에도 개인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다.¹³⁵⁾

열 번째,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제주 4·3을 마을주민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분노와 체념의 상실감을 넘어 하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용기있는 행보가 구체화되었다. 그 선상에서 1990년에 하귀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에는 마을 이름을 하귀리로 복원하였다. 그 후 10년 후 평화·공존의 추모 공간인 영모원을 마을민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마을로 성숙하였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인 2003년 5월의 일이었다.

전반적으로 하귀마을의 제주 4·3의 흐름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것은 하귀마을이 제주 4·3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방 공간에서 자주적인 민주국가 건설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추진했던 인민위원회는 3·1절 시위 발포 이전까지는 제주 사회를 이끌었던 자치 정부였다. 당시 애월면 인민위원회를 주도하였던 마을은 하귀였다. 하귀는 일제강점기 '하귀마을야학회' 사건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며,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이 많았던 곳으로 해방 직후 자주적인 조국건설을 주도하였다. 그 중심에 하귀중학원이 있었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 하귀중학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거의 참석하였다. 3·1절 발포 사건 이후 민관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군정의 탄압으로 잡혀가거나 산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귀에는 젊은 남자들이 사라져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귀는 저항과 탄압의 중심이 되어갔다. 미군정의 과잉 진압에 대한 저항감과 위기감이 커지던 찰나에 분단국가의 고착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정책이

135) 1980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제12조 3항)과 제6공화국 헌법(제13조3항)에도 연좌제 금지를 명문화했다(박찬식, 『제주4·3 바로알기』, 제주 4·3 평화재단, 2006, 48쪽).

강행되었다. 이에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4·3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5·10 총선거를 좌절시킨 유일한 지역으로 제주가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의 역사를 쓰는데 하귀는 그 중심에 있었다. 5·10 선거 며칠 전부터 많은 하귀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림면이 전체 등록 유권자의 70%가 투표를 한데 반하여 애월면은 32%만이 투표에 참여를 하였다.¹³⁶⁾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데 하귀가 그 중심에 있었다. 남과 북의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었다. 초토화 작전이 강행되었던 10월부터 3월 1일까지 5개월간에 집중적으로 희생되었다.¹³⁷⁾ 이 시기에 희생자 57% 정도의 하귀마을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희생일 미확인 희생자를 제외했을 때는, 초토화 작전 시기의 희생자가 전체 희생자의 61% 를 넘는다.

토벌대에 의하여 미수동 마을민의 학살, 가문동, 원뱅디에서의 학살, 외도지서 장작사건, 비학동산에서의 학살, 하귀공립국민학교 ‘눈 감으라’ 사건과 자운당에서의 학살, 외도지서 서쪽 밭에서의 학살, 소송 내에서의 학살 등이 자행되었다. 그 모두가 보복 학살이었다.

초토화가 극에 달했던 1948년 12월, 합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군법회의에서 17세에서 53세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육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한편으로 이때는 무장대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을은 세화, 위미, 남원 등이다. 1948년 12월 31일 경 하귀리에도 무장대의 공격을 받았다. 그날 무장대의 공격으로 하귀공립국민학교와 향사 및 가문동의 민가가 불태워졌으며 마을 사람들이 다쳤다.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선무 공작과 함께 5만 명의 민보단을 대거 동원하여 강행된 진압 정책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다. 무장대는 궤멸 상태에 이르고 1949년 6월 무장대 대장 이덕구가 사살되었다. 이 시기(1949. 6-7월)에 또한 많은 하귀 사람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육지 감옥으로 보내졌다. 1948년 12월에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던 사람들과 함께 이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행방불명되었는데 대부분 학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136)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2003, 234쪽.

137)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371쪽에 기술된 ‘월별 희생 신고 자료’를 보면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간 63.40%가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5 전쟁은 4·3의 악몽을 지우려는 제주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보도연맹가입자와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되어 제주비행장, 제주항 앞 바다, 첫알오름 등에서 죽어갔다. 이때 하귀 사람들도 지금의 제주비행장에서 사살되고 제주항 앞 바다에 수장되었다. 제주 4·3을 거치면서 제주 사람들 전체가 빨갱이로 매도되었듯이 하귀 역시 빨갱이 마을이 되었다. 빨갱이 마을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마을 이름마저 동귀와 귀일로 바꿨지만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의 세월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제주 4·3을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2003년에 만들어지고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이 만들어졌다. 이제 제주 4·3은 평화로 나가는 역사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하귀 사람들도 하귀마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하귀라는 마을 이름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1993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제주 4·3 영령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그들은 의지를 모았다. 10년이 지난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하귀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모 공간, 영모원을 조성하였다.

분단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구석이 있으나 4·3 희생자의 영령을 순국지사 및 호국영령과 함께 추모하는 공간, 영모원은 하귀리 사람들 스스로 이념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자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역사 현장으로 하귀마을의 4·3 트라우마 치유 공간이다. 이는 제주 4·3이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담론이 하귀마을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언 내용과 인명피해 그리고 미군정 정책에 대한 마을의 저항을 중심에 두고 ‘하귀마을의 4·3’을 조명한다면, 하귀마을 4·3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다.

첫째, 당시 하귀마을의 11%가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과 희생자의 90% 이상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양민학살사이며 마을주민의 수난사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해방 후 하귀마을은 사회주의 항일운동가 중심으로 구성된 인민위원회를 주축으로 자주적이고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을을

미군정과 친미 반공 세력 등이 탄압하자 이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하귀마을의 4·3은 생존권 운동으로서의 마을주민의 항쟁사이다.

셋째,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해방을 맞이했던 당시 상황에서 자주적인 통일조국의 건설은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이자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미반공세력을 구축하고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했다. 이에 하귀마을은 과도입법의원 재선거 불참, 3·1절 행사 참여, 민관총파업 동참, 5·10 총선거 거부 등을 통해 미군정의 정책에 저항하였다. 이것은 하귀마을의 4·3이 통일조국건설 운동이며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항쟁사였음을 보여준다.

제주 4·3 이후 무너져 버린 마을 공동체 공간에서 반공체제의 억압을 견뎌내야 했던 하귀마을이 제주 4·3 치유가 시작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이다. 그들의 언어로 마을의 4·3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하귀마을은 영모원을 조성하여 인권에 바탕을 둔 평화·공존의 길을 제시하였다. 하귀마을 영모원은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어떠한 행위도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되어 마을 공동체 복원과 함께 마을의 4·3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너져 버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의 시작은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다. 마을을 중심에 두고 각 각의 마을이 기억하고 있는 제주 4·3의 흔적들을 역사로 재조명하는 일은 다양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 마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감을 통한 소통이 확대된다면 마을 내부에서, 나아가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의 갈등 구조가 해소될 것이며, 그 속에서 제주 마을은 자존감을 지닌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전하고자 했던 항쟁사’로서의 제주 4·3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귀마을의 4·3을 생생하게 구현하지 못하여 그들의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¹³⁸⁾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다른 마을의 4·3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하여 제주 4·3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을 쓰면서 제주 4·3으로 무너져 버린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항쟁사로서의

138) 4·3이 끝난 후 여성들의 삶, 양자, 재산의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 4·3의 역사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진상 규명운동의 한계성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국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대량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¹³⁹⁾

꿈꾸는 세상이 다르다고, 국가 권력에 저항했다고 배제되고 죽어야 한다면 제주 4·3과 같은 야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 현재의 진상규명 운동의 한계성을 평화·공존의 광장에서 공론화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광장에서 제주 4·3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주 4·3은 평화 공존의 담론을 생성하는 역사의 장으로 조명되고 그 토대 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생성되리라 본다.

139) 제주 4·3연구자 양정심은 지금의 진상규명·명예회복운동의 가장 큰 한계점을 '제주4·3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양민학살로 정의하려고 함으로써 민중들이 역사 속에서 항쟁의 주체로 존재하였다는 과정을 배제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254쪽).

부표: 하귀마을의 4·3 희생자 명부

연번	성 명 [()는 평화공원 각명비]	나이	성 별	4·3 위원회 인정 희생자	비 고
1	강경수 49. 1.24	18	남	○	
2	강계효 49. 1.24	67	남	○	
3	강계효 48. 5.12	45	남	○	
4	강기량 48.11.28(48.12.28.)	49	남	○	
5	강기유 48.12.20(48.12.10.)	48	남	○	
6	강기중 48.10	32	남	○	행불
7	강기중의 처(妻)	31	여	○	행불
8	강남학 49. 3. 1	50	남	○	행불
9	강도원 49. 7. 7(50. 6)	40	여	○	행불, 수형인
10	강도화 48.10	23	여	○	행불
11	강두원 48.12	21	남	○	행불, 수형인(안두원과 동인)
12	강두익 48.5.31	24	남	○	
13	강두중 48.11.9(48.12.10.)	18	남	○	
14	강두호 48.8	19	남	○	행불
15	강무중(중) 49. 1	21	남	○	행불, 수형인(사형)
16	강봉환 48.12.28	13	남	○	
17	강봉희 49. 8.15	38	남	○	49.7.2 선고(옥사)
18	강병선 48.12.12	16	남	○	
19	강상돈 48. 5.26	22	남	○	
20	강상배 50. 8. 4	18	남	○	행불
21	강상언 50. 6	29	남	○	행불, 수형인
22	강상률 48.12.28	27	남	○	
23	강상주 48.10.26(49. 5. 4.)	26	남	○	
24	강상진 49. 3. 1	28	남	○	행불
25	강선 48.12.26	20	여		
26	강선희 49. 1.24	19	여	○	
27	강선행 48.12.26	20대	여		
28	강수일 58. 2.11	14	여	○	4,3후유증세로 사망 추정
29	강 순 48.12.10	26	여	○	행불
30	강순평 50, 6	30	남	○	행불
31	강승학 48.11.9(48.12.10.)	50대	남	○	
32	강시선 48.12.23(48.12.28.)	29	남	○	
33	강시중	15	남	○	
34	강시중 49. 5(48. 3.)	21	남	○	행불
35	강여화 48.12.29(48.12.20.)	24	남	○	
36	강영숙 49. 1.22	16	여	○	
37	강영주 49. 1.24	1	여	○	
38	강완순 48.11	25	여		
39	강완희 49. 5.20(48.12.10.)	2	남	○	
40	강용숙 48.11.6(48.12.7)	21	남	○	
41	강용승 48.12.27	17	남		행불, 수형인
42	강원창	23	남		
43	강원호 48.11.21	30	남		
44	강을진 49.12(48.10)	51	남	○	행불
45	강인이 48.12.19	43	남	○	
46	강인숙 48.12.27	16	남		행불, 수형인

47	강인홍	48.11.19(48.11.11)	67	남	○	
48	강순선	48.11.20	20대	남		
49	강신훈	49.10.	13	남		행불
50	강자선	48.10. 9(48.12.10)	19	여	○	
51	강재송	48.11.26(48.12.28.)	20	남	○	
52	강재생	48.12.25(49. 1.24.)	28	여	○	
53	강재정	49. 1.24	46	여	○	
54	강재철	50. 6월	34	남	○	행불, 수형인
55	강조생	48.11.26	19	여		
56	강종수	48. 4.11(48.5.22.)	30	남	○	
57	강종호	50. 6월	27	남	○	행불, 수형인
58	강종희	49. 2.14(49.3.13.)	30	남	○	
59	강종희	49. 7.30	22	남	○	
60	강창두	48. 5.(48. 5.15.)	18	남	○	
61	강창선	48.12. 7	33	남	○	
62	강창하	48.10(50. 6)	30	남	○	행불, 수형인
63	강창호	48.12.28	32	남	○	
64	강창휘	48.12.26	18	남		
65	강치남	48.11.28	19	남		
66	강태신	48.11.28	32	남		
67	강태중		15	남		후유장애
68	강해생	48. 6. 8	38	남	○	
69	강홍경	48.11.20	50	남	○	
70	강화순	48.11. 9(48.12.10.)	65	여	○	
71	강화신	49. 7. 7	18	여		
72	강화춘	49. 7. 7(50. 6)	24	여	○	행불, 수형인
73	강희선	50. 6. 이후	19	여	○	행불, 수형인
74	고경선	49.1.3	43	남	○	
75	고균식	50. 6.이후	19	남	○	행불
76	고남옥	48.10.13	14	여	○	
77	고남주	48.10.13	5	남	○	
78	고대규	49. 1. 9	29	남	○	행불
79	고대규	자(子) 48.12.25	4	남		
80	고두옥	48.11.26	39	남		
81	고두주	48.11. 9(48.12.10.)	51	남	○	
82	고두호	48.12. 3	43	남		
83	고만평	48.12.28	52	남	○	
84	고무생	48.12.21	39	여	○	
85	고명식	48. 6	13	남	○	
86	고병규	48.10.13	46	남	○	
87	고상수	48.12.10 (48. 5)	41	남	○	행불, 수형인
88	고석권	49. 1.18	26	남		
89	고석부	50. 6.	29	남		행불, 수형인
90	고석중	48.11	27	남		
91	고석호	48. 8. 1	25	남		
92	고선보	48.11	19	남	○	행불
93	고순후	48.12.10	26	남	○	
94	고승언	48. (49. 1.8.)	23	남	○	
95	고승옥	48.11.16	28	여	○	
96	고승조	49. 6.28(48. 5.)	19	남	○	행불
97	고승주	49.10.2	30	남	○	행불, 수형인
98	고승천	48.12.31	55	남	○	

99	고승희 48.10	20	남	○	행불
100	고연구 48.10	30	남	○	행불
101	고영기 48.11.26(48.11.11.)	26	남	○	
102	고영삼 48.12.16(48.12.10.)	62	남	○	
103	고영학 48.11.27(48.12.28.)	44	남	○	
104	고완병 47.7	15	남	○	행불
105	고완팽 62. 8.19	52	남	○	
106	고용기 48. 3·16(49. 4.14.)	38	남	○	
107	고용어 49. 7. 6	18	남		행불, 수형인
108	고용희 49. 1.10(49. 2. 7)	28	남	○	
109	고원 48.12.12	43	여		수형인
110	고원정 48.12(48.12.10.)	17	여	○	
111	고익중 48.12월 말	29	남	○	행불
112	고인호 48.12(49. 1. 8.)	46	여	○	
113	고정규 48.12.28	31	남	○	
114	고정규 처(妻) 48.12.10	30	여	○	
115	고창두 49. 4 (49.)	21	남	○	행불, 수형인
116	고창만 48.12. 9(50. 6.)	22	남	○	행불, 수형인
117	고창식 49. 7. 4(50. 6.)	22	남	○	행불, 수형인
118	고창조 49. 1	20대	남		
119	고창진 (49.5.)	25	남	○	
120	고창휴 49. 4.14	30	남	○	
121	고학수 48.10	17	남	○	행불
122	고흥치 48.12.10	29	남		행불, 수형인
123	고현술 50. 6 이후	18	남	○	행불, 수형인
124	고형중 48.12.28(48.12.28.)	27	남	○	
125	고형희 48. 5.26	63	남	○	
126	고희선 48. 6(48. 9.22.)	21	남	○	
127	고희전 48.11.29(48.11.10.)	64	남	○	
128	김공남 49. 6.29(49.10. 2.)	27	남	○	행불, 수형인(사형)
129	김공신 48.12. 9(49. 1.8.)	24	남	○	
130	김경순 48. 4.25(48. 6. 5.)	24	남	○	
131	김권수 48.10(48.12.12.)	24	남	○	
132	김계생 48.11. 9(48.12.10.)	28	여	○	
133	김귀남 48.12.28	31	남	○	
134	김기전 48.10	26	남		행불, 수형인
135	김기택 49. 7.15	26	남		
136	김길남 49. 3.25	30	남	○	행불, 수형인
137	김대경 48.11.27	26	남		
138	김덕수 48.12.13(49. 1.11.)	53	남	○	
139	김두수 49. 1.26	62	남	○	
140	김두욱 48. 5.12	26	남	○	
141	김두호 50. 3.20(49. 4.19.)	53	남	○	
142	김득중 48.11.12(48.12.12)	17	남	○	
143	김락준 48.11. 9(48.12.10)	59	여	○	
144	김만옥 52. 6.14(52.10. 2)	20	남	○	
145	김명윤 (48.12)	14	남	○	행불
146	김명미상	1	남		
147	김박길 49.10. 7	15	남	○	행불
148	김병수 48.12.10	75	남	○	
149	김병호 48.11.19(48.12.19)	26	남	○	
150	김병호 처(妻) 11.9(48.12.19)	26	여	○	

151	김봉운	49.10.28(49. 1.17)	25	여	○	
152	김산춘	48.12.25	28	여		
153	김상범	49. 4	29	남	○	
154	김서옥	49. 6.28(49.10. 2)	45	여	○	행불, 수형인(사형)
155	김석범	48.11.26(48.12.28)	24	남	○	
156	김선종	48.11.26	26	남		
157	김성태	49.12.24	27	남	○	
158	김순자	49. 3.29	7	여	○	
159	김승립	48.11.26(48. 5.22)	22	남	○	
160	김승만	50. 6	30	남	○	행불
161	김승태	48.12.15	21	남	○	
162	김여조		15	남		
163	김영수		63	남		
164	김영옥	48.11.26	38	남		
165	김영중	48.12.12	20	남	○	
166	김용규	50. 6	35	남	○	행불
167	김용규	50. 6	21	남	○	행불, 수형인
168	김용명	48.11(48. 5. 7)	23	남	○	
169	김용범	48.11	26	남	○	행불
170	김용선	50. 6	25	남	○	행불, 수형인
171	김용숙	48.11.12(48.12.12)	23	남	○	
172	김용식	48.12. 9(50. 6.)	37	남	○	행불, 수형인
173	김용언	48.12. 9(50. 6.)	24	남	○	행불, 수형인
174	김용운	50. 8(50.8.18)	20	남	○	행불, 예비검속자
175	김용인	48.12(48.12.24)	26	남	○	행불
176	김용진	48.11.28(48.12.28)	30	남	○	
177	김상훈	49.10. 2	21	남		행불, 수형인(사형)
178	김용철	48.11.17	24	남		
179	김용택	48.11.12(48.12.12)	27	남	○	
180	김용학	48.12. 1(48.12.31)	33	남	○	
181	김용화	51. 2. 2(51. 2.20)	37	남	○	
182	김원갑	48.12.29(49. 2.27)	26	남	○	수형인(사형)
183	김원국	49. 9.30	26	남	○	
184	김원익	48.12. 8(50. 6.)	18	남	○	행불, 수형인
185	김원중	48.12.22	43	남	○	
186	김원창	50. 6.	24	남	○	행불
187	김원호	48.12.21	28	남	○	
188	김은택	48.12.18(48.12.18)	25	남	○	
189	김을출	48.12. 7 (48.12.31)	45	남	○	
190	김익중	49. 7. 1(50. 6)	29	남	○	행불, 수형인
191	김익중	50. 6(48.12.28)	24	남	○	
192	김명미상(=김익중 자(子))	3(49.1.24)		남		
193	김인찬	49. 7. 2(50. 6)	21	남	○	행불, 수형인
194	김재봉	48.11.16	65	남		
195	김전중	50. 6	20	남	○	행불, 수형인
196	김정	48.12.24(49. 1.22)	60	여	○	
197	김정복	48.12.26(49.1.24)	36	여	○	
198	김정순	49. 1. 1	18	여	○	
199	김정순	48.12.31	17	여	○	
200	김정후	48.11.28(48.12.28)	52	남	○	
201	김정화	48.12.28	26	남	○	

202	김중봉	48. 4. 4(48. 5.12)	40	남	○	
203	김지수	48.10. 9(48.12.10)	67	남	○	
204	김지중	48.12.23	21	남	○	
205	김창규	48.11.26(48.12.28)	36	남	○	
206	김창수	48.11.26(48.12.28)	19	남	○	
207	김 춘	48.12.25(49. 1.24)	28	여	○	
208	김춘이	49.10(49.10. 7)	37	여	○	행불
209	김취중	48.12.28	24	남		
210	김태중	50. 6.18	26	남	○	
211	김표길	49. 3·10	39	남	○	
212	김하길		20대	남		
213	김하준		20대	남		
214	김호전	48.11	26	남	○	행불
215	김호중	48.11. 6(48.12. 7)	24	남	○	
216	김행문	49. 7. 6(49. 8.19)	50	남	○	행불, 수형인
217	김행석	48.10 (48.12.28)	47	남	○	
218	김행원	(49.3.29)	25	남	○	
219	김형택	49.10(49.10. 2)	20	남	○	행불
220	김형택	50. 6	20	남	○	행불
221	김효은	(49. 1.17)	3	여	○	
222	라창균		20	남		
223	문도	48.12.31	55	여		
224	문무생	48.12.31	51	여	○	
225	문수택	48. 4.17(48. 5.25)	30	남	○	
226	문신송	49. 2.20	49	남		
227	문원정		20대	남		
228	문인숙	48. 7.25(48. 7.)	28	남	○	행불
229	문정선	48.12.28	21	여		
230	문재언	48.12. 7(50. 6.)	29	남	○	행불, 수형인
231	문재옥	50. 6	35	남	○	행불
232	문춘		24	여		후유장애
233	문평용		22	남	○	수형인
234	박순규	50. 6. 8	19	남	○	
235	박영탁	49. 2	27	남	○	
236	박영호	49. 1	19	남	○	행불
237	박유태	48.12. 6(50. 6.)	27	남	○	행불, 수형인
238	박지석	50. 8.18	29	남	○	행불
239	배남철		10대 후반	남		
240	배두봉	48.12	35	남		
241	배사운	49.10	20	남	○	행불
242	배완평	48.12.28	25	남	○	
243	배인행	50. 4.	19	여	○	행불
244	백대석		16	남		
245	백용홍	48.11. 9(48.12.10)	50대	여	○	
246	손 현	48.11.27(49. 1.24)	50	여	○	
247	송권만	48.12	30	남	○	행불
248	송춘정	49. 4	24	남		
249	송책상	48.12.12	32	남		행불, 수형인
250	신달수		60대	남		
251	신레	49. 1.24(49. 1.11)	35	여	○	
252	신이신	49. 1.24	64	여	○	
253	신재훈		30대	남		

254	양근식	48.12.28	19	남	○	
255	양군봉	50. 6(50. 6.25)	21	남	○	행불, 수형인
256	양군선	50. 6(50. 6.25)	25	남	○	행불, 수형인
257	양군신	49.11.11	27	남	○	
258	양군철	49. 4.22	37	남	○	
259	양경제	49. 2.22	14	남	○	행불
260	양계정	49. 1. 7	26	여	○	
261	양기순	49. 6	19	남	○	행불
262	양두종	49. 6.28	28	남		행불, 수형인(사형)
263	양사봉	48. 5.26	67	남	○	
264	양상준	48.10.30	24	남	○	
265	양시우	50. 6	22	남	○	행불, 수형인
266	양자성	48.11.11	72	여	○	
267	양재문		60대	남		
268	양진원	48.12	19	남	○	행불
269	양천봉	48.12.28	33	남	○	
270	양치수		63	남	○	
271	양하윤	48.12.28	28	남	○	
272	양한유	48.12	13	남	○	행불
273	양현수	48.12.13	21	남	○	행불 수형인(임헌수와 동인)
274	이백옥	48.11.26(48.12.28)	38	남	○	
275	이병선	48.11.26(48.12.28)	19	남	○	
276	이재창	49.4.22	29	남	○	
277	이천송	48.11.26(48.12.28)	19	남	○	
278	이태순	50. 6	25	남	○	행불
279	이태원	48.12.12	23	남		행불, 수형인
280	임석봉	48. 7.17(48. 5.25)	48	남	○	
281	장만제	49. 2. 5	21	남	○	
282	장영만	48.12.28	14	남	○	
283	장영윤	48.12.28	20	남	○	
284	장재관	49. 3.25	20	남	○	
285	장재반	48.12.23	27	남	○	행불
286	장재숙	49. 1. 6(49. 2. 2)	27	남	○	
287	장재순	48.12.23	24	남	○	행불
288	장재서	49. 7. 5	19	남		행불, 수형인
289	장재선	49.12.13(49. 1.11)	32	남	○	
290	장재운	48.12.23	18	남	○	행불
291	장재일	49. 7.28	19	남	○	
292	장재준	48.11.26(48.12.28)	39	남	○	
293	장찬립	49. 7. 4(50. 6.)	21	남	○	행불, 수형인
294	장찬진	48.12. 8(50. 6.)	24	남	○	행불, 수형인
295	전기련	48.11	40	남	○	행불, 수형인
296	전영률	48. 8.29	18	남	○	행불
297	전오봉	48. 5.22	47	남	○	
298	전해윤	49. 1.23(49. 1.28)	23	남	○	
299	정달수	49. 1.25	37	남	○	
300	정달현	48.12.21	41	남	○	
301	조군하	48.12.28	23	남	○	
302	조성하	48.12.19	25	남	○	
303	조영아	48. 5.21	36	여	○	
304	조정하	48. 5.12	41	남	○	
305	조재두	50. 7	22	남	○	행불

306	조재일 48.12. 7	22	남	○	
307	조창수 48.12.12	17	남	○	
308	조창호 48.12.28	26	남	○	
309	진옥순 50. 6	31	여	○	행불, 예비검속
310	진인팔	30	남		
311	현공일 48.12.10	61	여	○	
312	현귀덕 48.11. 9	60	여		
313	현을호	50대	남		
314	현창효48.12.17	15	남	○	
315	홍승현 48. 5,13	19	남	○	행불
316	홍장생 48.11.11	38	여	○	
317	홍중봉 50. 6	26	남	○	행불
318	홍중석 48. 8.26	37	남	○	행불, 수형인
319	홍중석 자(子)48. 8.26	3	남	○	행불
320	홍중화 48.12.21	17	남	○	행불

※ 본 논문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4·3진상조사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 명부와 영모원 조성 과정에서 파악된 희생자 명부를 가지고 위의 하귀마을 희생자 명부를 작성하였음.

■ 참고문헌

가. 단행본

- 강만길, 『분단고통과 통일 전망의 역사』, 선인, 2013.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 박찬식, 『4·3과 제주 역사』, 각, 2008.
-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3.
-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 함께, 2005.
- 서중석 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9』[미국자료편 ③ ④], 2003. 『제주4·3사건 자료집1』[신문편], 2003.
-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 제주4·3연구소, 『4·3 장정』5권, 1992.
-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통권 창간호-16권, 각, 2001-2016.
- 제주4·3연구소, 『그늘 속의 4·3』, 선인, 2008,
- 제주4·3연구소, 『다시 하귀중학원을 생각하며』, 한울, 2013.
-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 관계문서』, 도서출판 각, 2001.
- 제주도, 4·3연구소, 『제주도 4·3 유적』1, 각, 2004.
- 제주 4·3연구소 엮음, 『이제사 말함수다』2, 한울, 1989.

제주도청,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9.

제주시·제주4·3연구소, 『평화와 인권의 성지 제주시-4·3 유적 답사 길잡이』, 각, 20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교육박물관,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애월읍』, (주)건국디자인편집실, 2014.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사건 1000인 증언채록 자료집』6권, 2007.

하귀리 발전위원회, 「영모원 관련 서류」, 2000-2016.

나. 논문

강정구, 「미국한반도 전략과 조선의 분단」,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김동만, 「제주지방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 비평』 봄호, 1991.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26권 4호, 창작과 비평사, 1999.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종민,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봄호, 1998.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41집 여름호, 2007.

서중석, 「제주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전예원, 1999.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史林』 제22호, 2006.

임대식, 「제주4·3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정책」,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다. 학위논문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성현, 「제주4·3 학살 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 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박명림, 「제주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호미'마을의 역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